



# 한인뉴스

2015



VOL. 223

haninnewsinni@gmail.com

謹賀新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SAMSUNG

# Samsung GALAXY Note 3 + Gear

## DESIGN YOUR LIFE



*Life is a journey of creation.  
Make your mark.*

Available in two colors:



## Samsung GALAXY Note 3 + Gear

- Featuring the latest technology of Android 4.3 (Jelly Bean)
- Superior performance with 1.9 GHz Quadcore + 1.3 GHz Quadcore
- Crystal clear display with 5.7" HD Super AMOLED
- Multitask easily with new S Pen and Multi Window features
- Exclusive design with premium back cover

Customer service & contact center:

Toll Free 0800-112-8888, Telp (021) 5699-7777 (hunting)



SamsungMobileIndonesia



@Samsung\_ID

[www.samsung.com/id](http://www.samsung.com/id)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나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구간	편명	출발	도착	요일	
자카르타	인천	KE628	2205	0655 <sup>+1</sup>	매일
		KE626	0755	1655	월,목,일
인천	서울	KE627	1535	2040	매일
		KE625	1920	0040 <sup>+1</sup>	수,토,일

\* 대한항공은 덴파사르에서 인천까지 매일 운항합니다.



##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a Korean Air office closest to you  
Jakarta : 62-21-521-2180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LOTTE SHOPPING AVENUE**  
New Shopping Paradigm



새롭게  
사랑  
많이 받으세요

# LOTTE SHOPPING AVENUE ONLY LOYALTY PROGRAM



## LoVE 멤버스



**롯데 쇼핑애비뉴를 더욱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  
롯데 쇼핑애비뉴 멤버십**

- ♥ 멤버스 회원 대상 특별 할인(최대 10%)
- ♥ 무료 주차
- ♥ 특별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및 기타 상세 정보는 2층 멤버십 데스크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 LoVE 뷰티클럽



**지금 LoVE 뷰티 클럽 에 가입하세요.  
당신은 아름다움이 더욱 특별해 집니다**

- ♥ LoVE 뷰티 클럽 회원만을 위한 전용 편의시설
- ♥ 모든 화장품&향수에 대해 추가 10% 할인
- ♥ 캐시백 & 뷰티 트리트먼트 패키지 제공

(상세 정보는 GF 화장품 코너의 LoVE 뷰티 클럽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 LoVE 키즈클럽



**우리 아이와 우리 가족이 더욱 특별하게!!!  
LoVE 키즈 클럽의 다양한 혜택과 선물을 즐기세요**

- ♥ 특별 무료 선물 (텀블러 1 pc)
- ♥ 어린이 생일 선물 (롯데 기프트 바우처)
- ♥ 10~17% 캐시백
- ♥ 특별 이벤트 초청

(상세 정보는 3층 아트&컬처센터 내 LoVE 키즈 클럽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Util Tech Group**  
Head Office  
Util Corporation „LTD

# PT Utiltech Indonesia Jaya

“최고의 기술력, 최고의 품질로”

귀사의 프로젝트 및 스페어파트를 빠르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Double Worm Reducer



Worm Reduc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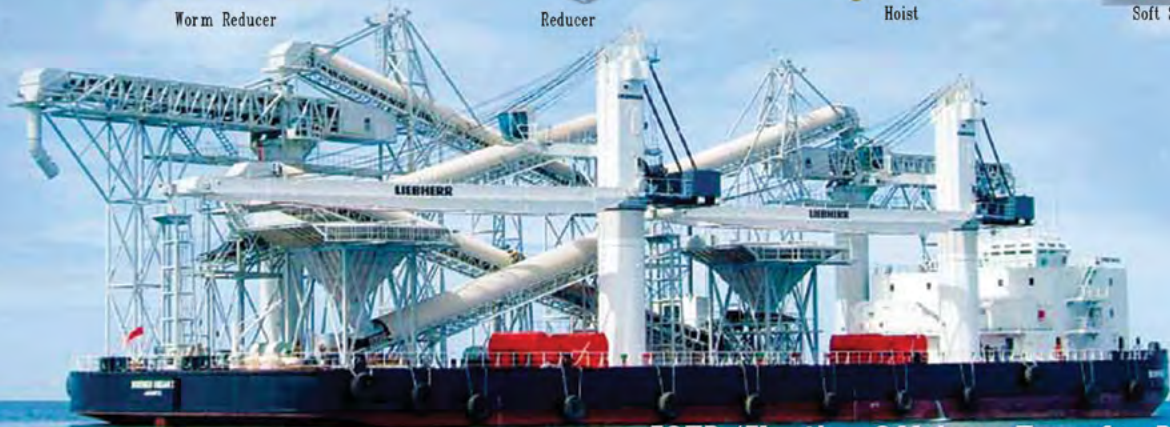
Reducer



Hoist



Soft Starter



**FOTP (Floating Offshore Transfer Platform) Shipbuilding**



**Business Partner**

- 주성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KIDECO  
FLF 배치 선형 : BORNEO INDAH I 석탄 광역 설비 (시간당 3,000톤 처리능력)  
Coal Loader Facility / New Building,  
G.T : 6,410 Ton D : 110.0 x 27.5 x 7.0m  
6set belt conveyor/ 2set swing loader conveyor/ 2set hopper  
Cargo Handling Capacity : 3,000T / H 60,000Ton / Day
- 주성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KIDECO  
FLF 배치 선형 : BORNEO INDAH I (시간당 3,000톤 처리능력)  
Coal Loader Facility / New Building,  
G.T : 6,410 Ton D : 110.0 x 27.5 x 7.0m  
6set belt conveyor/ 2set swing loader conveyor/ 2set hopper  
Cargo Handling Capacity : 3,000T / H 60,000Ton / Day
- 현지법인 JSK shipping  
FLF 배치 선형 : SEA LIFT NO.1  
Coal Loader Facility / Full Conversion  
G.T : 1,462 Ton D : 55.8 x 22.0 x 3.8m  
3set belt conveyor/ 1set swing loader conveyor/ 2set hopper  
Cargo Handling Capacity : 2,000T / H 20,000Ton / Day

**Util Group Main Business**

Offshore / Onshore Bulk Handling System(Cargo Handling System)

- Offshore Bulk Handling System  
1) Bulk : Coal, Iron ore, Woodchip, Limestone & Others  
2) Loading Facility  
- FLF(Floating Loading Facility) - FOTP(Floating Offshore Transfer Platform)  
- FLF Terminal Type>Loading Capacity :  
2000-4000ton/hr & others, Loading Facility : Crane Type, Excavator Type, Portable Loader Type)
- UnLoading Facility  
SUV(Self Unloading Vessel) Tunnor Conveyor, C-Loop Elevation Conveyor
- FCB(Floating Crane Barge) : 30-50 ton Crane  
Onshore Bulk Handling System  
Coal Terminal System : Coal Crushing System / Coal Handling Conveyor System / Stacker / Reclaimer / Shiploaders

**Plant**

Biomass Power Plant / Environmental Facility / F.A(Factory Automation)/Accommodation Barge Facility / Live Stock Carrier Facility / Others



**PT Utiltech Indonesia Jaya**

Tel +62-21-5289-2095 / 070-4038-5273 Fax +62-21-5289-2096 [www.utilcorporation.com](http://www.utilcorporation.com) , [www.utilgroup.co.kr](http://www.utilgroup.co.kr)

대한민국 신기술혁신상대상 수상

한국소비자웰빙지수 1위

ST. JAMES

ZEN COOK

세제가 스며들지 않는 독배기,  
안전한 젠쿡으로 바꾸세요!

직화OK! 전기레인지OK! 전자레인지OK! 오븐OK! 인덕션OK!  
(인덕션전용제품 ONLY)



세인트제임스는  
친환경도자기 젠한국의 인도네시아 브랜드입니다

젠 쿡  
시리즈



도자기독배기



잉글리쉬가든



노르덕



스칸디나비아



오렌지전골



쿠킹베이커



캘리코 공순

SAINT JAMES  
SHOW ROOM

Lotte Shopping Avenue Lt.2 021 2988 9214~5 Pondok Indah Mall II Lt.3 021 7592 0615 Lippo Mall Kemang Lt.2 021 2952 8529~30 Lippo Mall Puri LG(St.Moritz) 021 2911 1197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동중 인도네시아는

1 23년간 축적된 기술로

포장용 비닐 (Poly Bag) 및 프린트에 관한 완벽한 기술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과

친환경제품 생산을 위한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3 Best Quality & Quick Delivery를 최우선으로 귀사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당사1공장 내부

**Head Office**  
(Jakarta)  
T 62-21-525-2258  
F 62-21-525-0141

**Factory 1**  
(Curug-Tangerang)  
T 62-21-598-7513, 598-0152  
F 62-21-598-0860

**Factory 2 & Marketing Office**  
(KBN Cakung-Jakarta)  
T 62-21-440-3926  
F 62-21-440-3944

**Marketing Office E-mail**  
dji\_mkt@cbn.net.id  
bhjangik@indosat.net.id  
kendj@cbn.net.id



2015 년 을 미 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호의에 깊이 감사드리며  
甲 午 年 새해에도 계획하신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 더불어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

1.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한인사회
2. 소통으로 하나되는 한인사회
3. 나눔으로 축복받는 한인사회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며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입니다

물류운송 & PROJECT CARGO 운송 전문업체  
PT. HANINDOEXPRESS utama

GRANADI Building, 7th Floor South Wing  
Jl. H.R. Rasuna Said Kav.8-9 Kuningan  
Jakarta 12950 Indonesia

Tel: (62-21) 2525 123 (Hunting)  
Fax: (62-21) 2520 551, 2520 556  
e-mail: hanindo@hanindo.net

homepage : [www.hanindoexpress.com](http://www.hanindoexpress.com)

#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해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지난 한 해동안 한인뉴스를 후원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신 기 업 배상



우정의 페스티벌에서 인도네시아 대학생의 공연무대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dqdoodle

신년호 차례.....10

2015을미년 신년 연하장.....12

신년사 <조태영대사>.....14

신년사<승은호명예회장>.....16

신년사<신기업회장> ..... 18

2015신년인사 ..... 20

이모저모한인사회 .....24

논설위원 칼럼 <김문환 논설위원>

한-인니 우정의 페스티벌

신년 하례식

2014 CSR 포럼 개최

여기는 학교가 아니다.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라.  
미성의 오차장 말처럼  
성과에 목마른 많은 사람들이  
정답과 해답 사이를 오가며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생각은 내가 할테니 너는 메뉴얼에 따라 실행만  
하라고 요구하는 공간에서  
나는 전체가 되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엇에 눈을 둘 것인가?

2015라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내가 잘 쓰일 수 있는 곳을 찾아  
기쁨을 맛보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 홍석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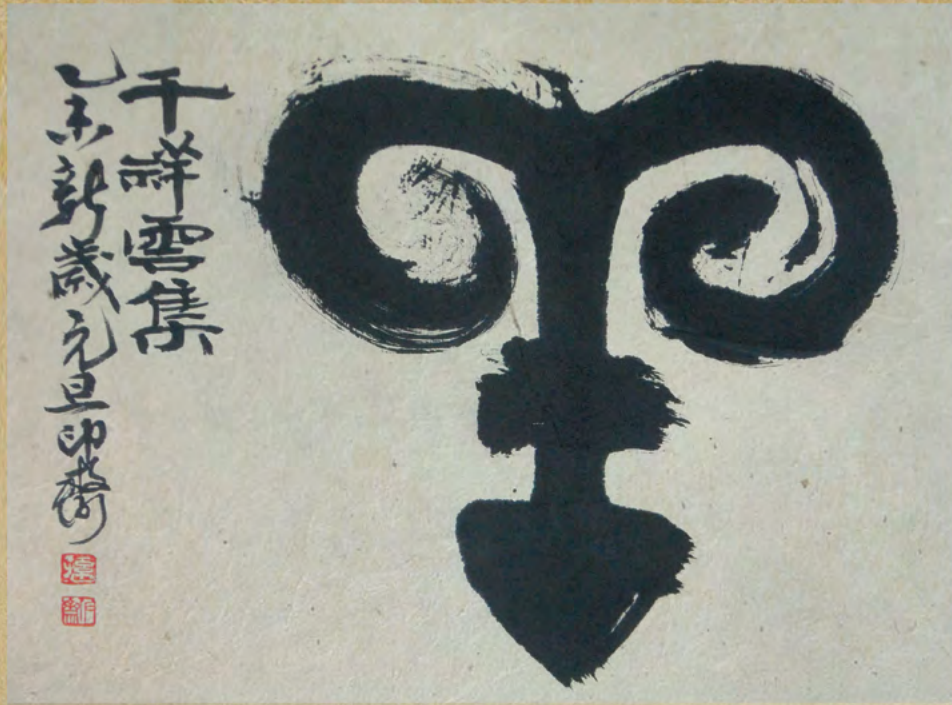
조코위도도 인니대통령과의 면담 아름다운가게 신간도서안내 제1회 대한민국대사배 바둑대회 인우회8주년 행사 선수단 해단식 제2기 글로벌 CEO 과정 동부자바한인회 송년회 열린강좌 명장면 하나 KOICA, 수마트라 유료도로 사업 타당성조사 정수처리시설 준공회 제5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인터넷문학상 시상식 JIKS소식 JIS소식 동포안내문  2014 12월 월간경제브리핑.....56	1월의 행복에세이 <서미숙>.....62  내 마음의 뜰 / 유성우 <시:최장오/그림:이태복>.....65  Jalan-Jalan Jakarta / YANI대장 박물관<사공경>.....66  법률해설/ 분쟁해결2<이승민>.....70  지상갤러리<김선옥>건강상식,,,,,,75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허영순>.....76  화도소 .....78  생활정보
---	---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신기엽 / 편집인 : 조규철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 편집위원 : 김재민, 최양기, 엄종한, 황윤홍 /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 2015 을미년 신년 연하장



연하작품 설명 : 祥(상, 羊과 동일한 글자로서 상서오음을 의미)  
千祥雲集(천상운집) / 천 가지 상서로운 일이 구름처럼 모여 들다. (작가 인재 손인서)

# 謹賀新年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평화의 상징 양의 해,  
乙未年이 우리에게 새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재 인도네시아 한인동포 여러분!

올미년 한 해 동안 하시는 일과 각 가정에  
천 가지 만 가지 상서로운 일이  
구름처럼 모여들기를 기원합니다.

乙未年 元트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



[신년사]

## 2015년은 새로운 번영의 미래를 열어가는 한해가 되기를...

인도네시아 한인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을미년은 푸른(靑) 기운이 듬뿍 담긴 ‘청양(靑羊)’의 해로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푸른색의 의미가 더해져 개인과 가정에 큰 행운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또한 공동체 생활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양처럼 우리 한인동포 사회도 상생과 화합의 아름다운 전통을 바탕으로 한층 더 발전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4년은 그동안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이 쌓아온 신뢰와 협력,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한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신정부가 출범하였고 미래의 번영과 발전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아세안 25주년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하며 아세안의 굳건한 동반자로서 위상을 다졌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양국 간 투자확대와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정부와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협력을 통해 굳건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5년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양국 지도자간의 합의를 토대로, 번영된 미래의 동반자로서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상생

과 번영의 양국관계를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양국 외교장관 공동위원회 개최와 국방·방산 협력, 무역과 통상, 전자정부와 인프라, 창조산업 등 구체적인 의제를 통해 양국이 협력하고,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번영된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 한해 우리 동포사회는 인도네시아 곳곳에서 활약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 발전을 이루어내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건실한 경제활동을 통해 생산과 고용을 창출하고, 진출기업들의 뜻을 모은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회를 중심으로 뜻을 모아 준비한 ‘한·인니 우정의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는 양국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고 미래 발전에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양국 국민들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고 번영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대사관과 우리 동포사회, 진출기업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대사관은 동포사회의 안전과 발전, 상생과 화합을 위해 항상 가까운 자리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와 인내의 상징인 양의 해에 한인 동포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주인도네시아대사 조태영



[신년사]

희망이 자산입니다. 잘 될 것이라 믿읍시다.

다시 희망을 이야기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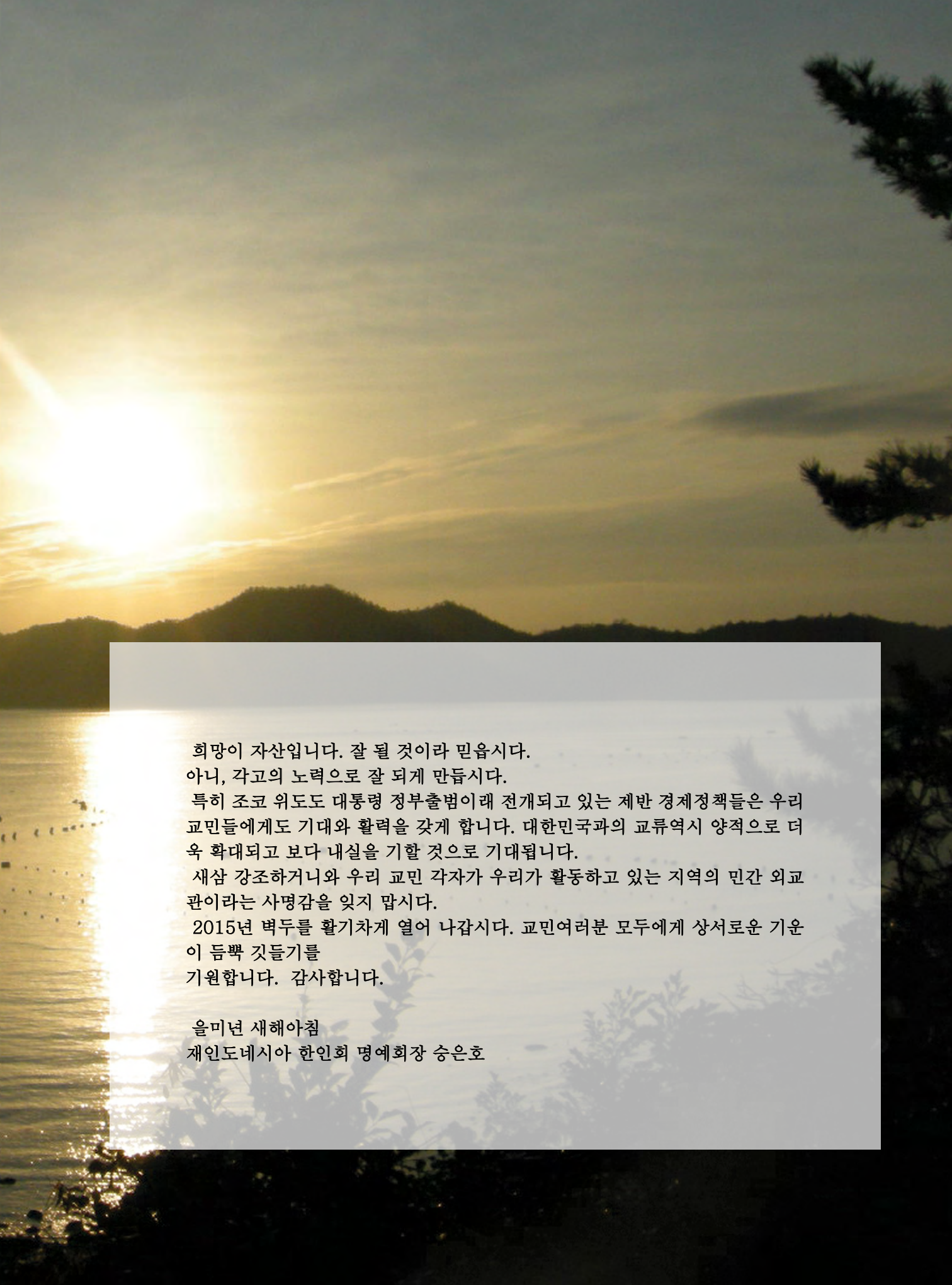
올미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교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4년은 국내외적으로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특히 수학여행길에 나섰던 수백명의 어린 학생들이 어이없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는 전국민을 충격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나라 바깥에 활동근거를 둔 우리 인도네시아 교민들도 함께 아파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상처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세월호 참사’는 언제든 되풀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이야말로 매사를 알뜰히 점검하고 기본을 충실이 지켜서 안전하고 화평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2015년의 경제환경 역시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고국의 품을 떠나 개척의 역사를 일궈온 우리에게 언제 장밋빛 청사진이 보장된 적이 있었습니까.





희망이 자산입니다. 잘 될 것이라 믿읍시다.

아니, 각고의 노력으로 잘 되게 만듭시다.

특히 조코 위도도 대통령 정부출범이래 전개되고 있는 제반 경제정책들은 우리 교민들에게도 기대와 활력을 갖게 합니다. 대한민국과의 교류역시 양적으로 더욱 확대되고 보다 내실을 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삼 강조하거니와 우리 교민 각자가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민간 외교관이라는 사명감을 잊지 맙시다.

2015년 벽두를 활기차게 열어 나갑시다. 교민여러분 모두에게 상서로운 기운이 듬뿍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을미년 새해아침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명예회장 승은호



[신년사]

##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한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인동포 여러분,

희망과 설렘의 2015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인사회는 5만여 동포가 살고 있으며 2,200여 기업이 100만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사회 중 가장 큰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사회가 이렇게 발전되어 온 만큼 한인동포의 권익신장과 안전에 대한 권리증진에 우선적으로 힘써야겠지만 그와 비례해서 종전과 달리 그 규모에 맞게 인도네시아 사회로부터 우리의 의무사항도 점차 크게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시대흐름에 따라 변모되어지고 있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인사회와 인도네시아 사회가 더욱 화합하고 서로 존중해 주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인도네시아 법

을 지키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더욱 배려하고 소통하면서 축복받는 한인사회를 가꾸어 나가는데 가일층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한인동포 여러분,

지난 해 4월에는 우리 한인회가 모금하여 약 15억 루피아 상당의 수재 의연품을 인도네시아 적십자사에 전달하여 우리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였으며, 2013년에도 6년만의 대홍수로 고통받는 수재민에게 적십자사를 통하여 15억7천만 루피아의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여 위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20일 우리 한인회가 주최한 “2014 한-인도네시아 우정의 페스티벌” 축제가 1,300여명의 양국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양국민이 앞으로 친구처럼, 가족처럼 더불어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는 첫걸음을 시작한 아주

의미있는 행사로 이 자리를 빌어 행사를 후원해 주신 양국 정부 기관과 협찬사 여러분 그리고 재능 기부를 하여 주신 출연진과 자원봉사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인동포 여러분,

지난 해 10월 20일 조코위 대통령 체제의 문민정부가 들어 선 이래 인도네시아는 많은 정책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거주 여건 및 밀수 단속과 세금 징수 강화가 두드러진 변화이오니 동포 여러분께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와 대처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인사회는 50년의 성숙한 동포사회로서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불법 밀수 주류는 마시지도 말고 팔지도 맙시다.

2. 관세 및 세금은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킵시다.

3. 인도네시아 행정 절차가 비록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존중하고 숙지하셔서준수토록 합시다.

4. 동포간의 이해관계 마찰은 인도네시아 관계 기관에 직접 호소하지 마시고 당사자간 사전 합의. 조정애 힘쓰며 슬기롭게 해결합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인동포 여러분,

우리가 인도네시아 문화를 이해하고 관습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진정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 되겠지요.

동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십시오.

2015년 새해 아침에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신기엽



# 2015 신년인사

존경하는 한인 상공인 여러분!  
2015년 희망의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정치·경제 정책의 변화가 많았으며, 특히 최저임금 및 보조금연료 인상으로 인한 전국적 노동자 시위가 한인 기업인들 사이의 큰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재인니 상공회의소는 이러한 한인 상공인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 관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및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도모해오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한인 기업가들이 앞으로도 원활히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가 중간자로서 더 많은 성과와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Go Global, Kocham Together!

재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회장 송창근

“함께하면 통일의 꿈은 더 빨리 이루어 집니다.”

2015년 을미년 새 아침이 어둠을 물리치고 솟아나는 희망의 여명처럼 밝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꿈을 함께 꾸고 실행한다면, 그 꿈은 현실화된다고 합니다.

2015년 을미년 양의해를 맞이하여, 모두가 한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양떼들처럼 교민들 모두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다 함께 진일보하시고,

새해에도 인도네시아 교민 여러분의 가정에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민주평통 동남아남부 협의회 회장 박동희



한인뉴스 독자 여러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2015년에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따뜻한 한 해로 만들어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인뉴스도 동포들의 성원에 힘입어 더욱 알찬 내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한인뉴스 편집인 조규철

혼돈스럽던 국선, 대선의 소용돌이를 잘 헤쳐 나온 일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 한인사회와 현지사회가 손을 마주잡고 별인 ‘우정의 축제’ 한마당은 대미를 장식하였습니다. 지금은 숨쉴 틈 주지 않고 또다시 열리는 새해를 마중 나가야 할 때입니다. 답답했던 경제여건이 금년엔 좀 풀릴 것이라는 희망을 가득 안고 동해바다로 나갈 볼 참입니다. 한민족의 후예답게 어떤 도전과 역경이 다가와도 이를 극복하리라는 의지를 다짐합니다. 아울러 최대 외국인사회라는 위상에 걸맞게 ‘양 같이’ 품격을 지키는 노력을 망각하지 않겠다고도 약속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문환, 한인문예총회장



올해가 을미년(乙未年) 청양띠의 해라고 합니다.

양의 온순하고 부드러움과 청색의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의미가 더해져서 개인과 가정에 큰 행운을 불러 온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의 개인과 가정에 큰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숨가쁘게 달려 온 지난해의 모든 부정적인 일들과 작별하고 새롭게 다가 오는 한 해를 긍정적이고 풍성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첫 출발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직면한 대 내외적으로 저항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분명히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 하시길 기원합니다.

재인도네시아 봉제협의회 회장 김종림 드림

존경하는 재인도네시아 대한 체육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한인 동포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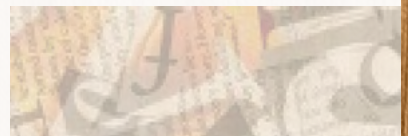
지난 한해 인도네시아 교민 체육 발전과 육성을 위해 애써오신 인도네시아 대한 체육회 관계자 및 가족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역사가 50년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 여러분들이 인도네시아 정부와 민간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경제, 정치,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한국 정부간 가교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에 체육회도 2011년 재인도네시아 대한 체육회 발족과 더불어 한인 동포 사회와 동참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체육 교류를 더 발전 시켜 체육 활동을 통한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간의 체육 활동 유대 강화 및 한인 동포 사회를 체육 활동을 통하여 체육회가 동포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노력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청양띠해도 재인도네시아 체육회에 동포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고, 이에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는 동포 여러분의 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교민 화합의 기틀을 다지는데 항상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세계 체육 총연합회 회장 양영연



격동의 2014년 한 해를 뒤로하고 희망과 설레임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한국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고 있는 것 같은 이유는 열대의 땅 인도네시아에서 우리의 꿈을 펼쳐 보고자 더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온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교민모두의 가정에 환하게 웃고 행복해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단 오늘을 오늘보단 내일이 더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새로운 목표와 다짐 속에서 2015년의 화살을 힘차게 쏘아 봅니다.

재인도네시아 신발협회 회장 신만기

저는 행복의 기준이 스스로의 만족여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해에도 “이만하면 되었다” 라는 자기최면으로 행복하고 만족스런 한해가 되시기를 교민분들과 선후배 ROTCian 여러분에게 2015년 乙未年 새해 인사로 이 지면을 빌려 전합니다.

18대 재인니ROTC회장 김홍규



존경하는 한인 동포 여러분 !

희망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여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구대국 및 자원부국 인도네시아는 금년에 여러 분야에서 안정적 발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러한 호기를 맞이하여 큰 뜻과 희망을 품고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크게 성공하시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여 왔지만 대한민국은 자랑스럽게 발전하여 왔으며, 한-인니 양국은 모든 면에서의 협력관계 발전은 물론 양국국민 간 우호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우리 동포들은 대한민국의 든든한 해외 파트너이며, 발전하는 대한민국은 동포사회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지인들과의 다양하고 깊은 교류를 통하여 상호 우정을 공고히 함으로써 양국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층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조국 대한민국을 더욱 사랑하면서, 저희들의 삶의 터전인 인도네시아도 사랑하기로 다짐하시는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회장 현상범

상처가 희망이 되는 2015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깜보자 후드득 진다.

바람이 가지를 흔들자 우기가 시작되었다.

비가 되어 떨어지는 꽃잎.

상처와 향기 사이에서 서성이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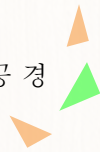
“상처 많은 꽃들이 가장 향기롭다” 는

어느 시 구절처럼

아! 우기에 듣는 저 눈부신 희망 향기 바람은  
또 불어오겠지.

꽃은 또 피어나겠지.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장 사공 경



존경하는 교민 여러분!

대지를 박차고 내달리는 준마처럼 다사다  
난했던 지난해에도 우리 교민들은 도전과  
노력과 화합으로 인도네시아에서 대한민  
국의 위상을 한껏 드높였습니다.

이제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글로벌  
시대에는 세계 각국에서 살고 있는 인재  
들의 발굴 및 활용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 교민들의 무  
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이 사회를 위해,  
우리 모국을 위해 발휘되는 2015년, 여려  
분의 가정과 사업에 큰 발전이 있는 2015  
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KOWIN 회장 박현순

2014년을 보내면서 옥타 인도네시아 차세대  
가 생긴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꾸준한 발  
전을 이끌었던 선배님들 위에 또 다른 젊음의  
초석을 놓기 위해 변화하고자 많은 맘을 흘리  
고 고민했던 1년이 있습니다.

2015년은 또 다른 도전으로 나아 가야 할 것  
입니다, 우리의 도전이 멈추는 순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어느덧 좌절이라는 멍에 갇히게  
됩니다, 서로 격려하며 지쳐있을때 손을 내밀  
어 잡아주어 우리의 도전을 중단하지 맙시다.  
크고 멋진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  
리가 포기하지 않고 해냈다는 것을 서로 확인  
하고 땀흐르는 얼굴에 서로 웃어줄수 잇는 새  
로운 한해로 거듭나는 2015년이 되길 기원드  
립니다.

건강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한해 되시길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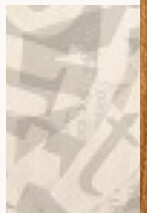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옥타 차세대 대표  
김필수 올림

참으로 다사다난의 한해를 보내고  
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강성  
과 재인도네시아 교민기업들의 큰 결실  
을 기원 드리며 교민사회의 안녕과 평안  
함을 기도드립니다.

저희 국제용무도 회원들 모두가 항상 정  
도를 추구하며 성실하게 교민사회발전  
에 성심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제용무도연맹 인도네시아지회 회장  
배웅식





Kabinet Kerja

## 실무내각

김문환/논설위원

**명** 동에서 자장면식당을 운영하던 화교가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정착하여 개업한 식당에 한국인이 들어왔다. 그 한국손님은 주문을 한 지 채 몇 분이 되지도 않았는데 목청을 돋구며 ‘빨리빨리’를 외치는 것이었다. 식당주인은 이 말이 듣기 싫어 이민 왔는데 여기서도 또 듣게 되었다고 불평을 하였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한국인이 다른 민족과 비교되는 특성 중 하나가 ‘빨리빨리 문화’가 몸에 배어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자세가 때론 상대방에게 불편한 심기를 안겨주기도 하지만, 근면성과 추진력이라는 긍정적 요소도 내재되어 있어, 때론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물품납기를 지키는 상관습은 우리의 트레이드마크처럼 고착되어 경제발전 추진력에 마력수를 더하여 왔다.

지난 10월 25일 일요일 오후, 대통령궁 앞 정원에서 조꼬위 신정부의 조각명단이 발표되었다.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는 시간, 정원 앞에 마련된 포디엄에서 대통령이 한 사람씩 호명하면 해당장관이 걸어 나와 대통령 양 옆으로 도열하는 것이었다. 대통령궁 건물 안에서 얼굴만 내밀고 대기하던 장관들이 호명된 후 10~20 미터 정도 되는 거리를 통상 걸음대로 어슬렁거리자, 대통령은 갑자기 ‘빨리 나오세요, 뛰세요!’라고 채근하는 것이었다. 이순간부터 분위기는 반전되었다. 장관들이 체면불구하고 마구 뛰기 시작한 것이다. 중졸학력으로 입지전적인 성공스토리를 써 내려온 수시 뿌지아스뚜띠(Susi Pudjiastuti)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차게 뛰어나와 숨을 가쁘게 몰아 쉬었다. 두 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취임식 한국특사 접견을 부통령에게 미룰 정도로, 마지막 순간에 바뀌고, 또 바뀐 34명의 장관들



이 모두 도열하자 조꼬위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를 ‘실무내각(Kabinet Kerja)’ 이라 명명하였다. 유도요노 전 정부는 연정으로 인한 모자이크 내각을 의식하여, ‘통합내각(Kabinet Bersatu)’ 이라 부른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뉴앙스를 풍긴다. 조꼬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현장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했으며, 이를 지켜 보던 장관들도 조꼬위와 유사한 복장을 갖추고 경쟁적으로 현장에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고위 관료사회는 지금, 자바어로 ‘블루스칸(Buluskan)’ 이라 부르는 ‘불시 현장시찰’ 현상에 함몰되어 있다.

우리 동포기업인들이 개척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몸에 베어있는 근면성과 추진력에 꼭 맞아 떨어지는 열기가 지금 인도네시아 관료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다. 조각명단발표 당시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던 수시 해수부장관은 그때의 투지(?)를 살려 나포된 불법어선박들을 속전속결로 폭파하는 과단성을 보이며 국내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나포된 베트남 불법어선 세 척을 12월 5일 리아우섬 인근에서 공개적으로 폭파시키더니, 12월 21일에는 파푸아뉴기니 국적어선 두 척을 암본 해상에서, 12월 28일엔 태국

국적선 두 척을 역시 리아우섬 부근에서 폭파하며 국가별로 돌아가며 경중을 울리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여성장관의 이런 결단성과 속도전은 전례가 없다 보니, ‘상대국어선 폭파’ 에 대한 외교적 마찰 가능성에 대해 요즘 국제법, 해양법학자들이 바빠지고 있다.



Susi Pudjiastuti

지난 12월 20일 발레이 까르띠니(Balai Kartini) 공연장에서 끝난 ‘우정 페스티벌’ 을 관람한대로 양국간의 문화교류가 종전의 케이팝 중심의 일방적 통행에서, 이제는 양국 국민들이 서로 친구가 되어 그들도 ‘크레용팝’ 을 즐길 줄 알며, 한국의 ‘경기민요’ 에도 접근할 수 있는 단계로 승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듯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친구가 되어가고 있는 환경 속에 우리 한민족의 상

표인 ‘빨리빨리’ 까지 양국의 국경선을 넘어 인도네시아에 파급되는 트렌드로 자리잡는 현상을 느끼게 된다. 10년 전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KPK) 출범 초기, 한국 부방위의 역할이 숨어 있었듯이, 이젠 정부시스템, 또는 정신유산까지 수출품목으로 분류해야 하는 단계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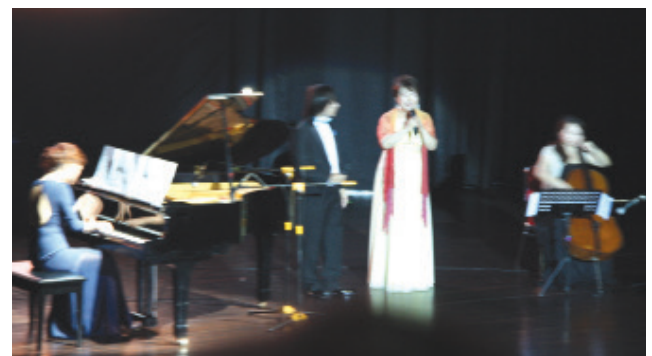
## ‘한-인도네시아 우정의 페스티벌’



한-인도네시아 양국의 다채로운 문화 예술을 교류하는 우정의 한마당 ‘한-인도네시아 우정의 페스티벌’이 20일 오후 자카르타 발라이 까르띠니 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 각계각층의 동포와 인도네시아 정부관계자, 양국 청년들이 참석해 전시와 공연을 즐겼다.

공연에 앞서 신기엽 한인회장은 인사말에서 “인도네시아에는 약 2,200개의 한국기업들이 진출해있다. 이들은 1백만여명의 인도네시아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이번 문화 축제를 기획하며,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우리 양국이 정치와 비즈니스를 넘어서 더 공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잔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1부 전시와 친교의 시간에는 월차화 회원들이 다도시연을 펼쳤다.

조태영 주인도네시아 대사는 축사에서 “양국이 이렇게 오랜 기간 우호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에 감명받았다. 서로에게 우정과 신뢰가 쌓여야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만큼 더욱 다양한 교류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Nick T. Dammen 인도네시아-한국 친선협회 (IKFA)장은 축사에서 “양국의 우호관계는 40년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우정을 이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한국의 '소고춤' 과 자바의 '끄라똌(Keraton) 춤(왕실춤)' 이 선보였다. 양국의 관광 안내 영상과 41년간의 양국 공식 협력관계 영상 등과 조꼬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최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 사진도 소개됐다.

최초의 한국인 당뚝가수로 알려진 황우중씨(리키우중)의 흥겨운 무대와 아버지 양상블의 귀에 익은 선율이 객석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어 국립 인도네시아 대학교(UI) 한국어학과 학생들과 UI 한국 학생들, UNAS 한국어과 학생들의 K-POP 댄스 공연도 이어졌다. 인도네시아인으로 구성된 K-POP 걸그룹 S.O.S도 열정적인 공연을 펼쳐질 때마다 관객들의 열띤 환호를 받



았다. 이어 Dr. Harry Darsono의 퍼레이드 뮤지컬은 노래와 춤과 패션이 어울어진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인도네시아 소프라노가 선사하는 그리운 금강산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공연을 총괄 기획한 임경애 인도네시아 대학교 한국학과 교수는 “넉달동안 여러 콘텐츠를 순수 창작의 새로움으로 선보이고자 최선을 다했다. 이 공연을 위해 UI대 한국학과, UNAS대 한국학과, 자카르타 예술대학교 공연예술대 학생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양국의 우정을 다지는 즐거운 무대가 가능했다”고 감동을 전했다.

태권도와 태권을 중심으로 한 동양무술과 유쾌한 코미디를 혼합한 뮤지컬 ‘점프(JUMP)’의 시범 공연을 끝으로 미리 받은 양국의 국기를 흔들고 아리랑을 합창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준비된 만찬을 나누며 풍성하고 즐거운 잔치가 마무리 됐다.



## 감사의 말씀

**재** 인도네시아한인회가 주최한 [ 2014년도 한-인도네시아 우정의 페스티벌 ] 행사가 1300여명의 양국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에는 무엇보다도 한-인도네시아 양국이 1973년 대사관급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40여 년간의 우호협력을 토대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하여 호혜적으로 내실 있게 발전시켜왔던 그간의 양국 외교관계 뿌리가 이 행사가 대성공을 할 수 있게 된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의 특징은 지금까지의 주최기관에서 기획되어 온 일방적인 보여주기 행사를 탈피하여 함께 참여하는 쌍방향의 문화교류를 통하여 양국 국민이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는 폭을 넓혀서 서로 소통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는 것 입니다.

나아가서 두 나라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양국의 차세대 젊은이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번 행사를 격려해주기 위해 본 한인회가 처음으로 장을 마련한 이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동포사회의 사랑과 성원을 받음으로써 회를 거듭할수록 양국의 정례적인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이 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 성원을 보내주신 한국대사관, 인도네시아 정부기관, 유관기관, 협찬사, 재능기부를 하여주신 출연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오며 한 해를 뜻 깊게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시며 가내에 행운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4년 12월 22일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신 기 엽 배상

### “2014 한-인도네시아 우정의 페스티벌” 협찬 및 후원 리스트

#### 협찬

No.	회사명
1	PT.KIDECO JAYA AGUNG
2	KORINDO GROUP
3	SAMSUNG
4	PT.CIPTA ORION METAL
5	CJ INDONESIA
6	PT.DONG JUNG INDONESIA
7	PT.DOOSAN CIPTA BUSANA
8	HANINDO EXPRESS
9	PT.JAYA SAMUDRA KARUNIA SHIPPING
10	PT.KMK GLOBAL SPORT
11	KEB HANA BANK
12	THE NISSI GROUP
13	PRATAMA
14	JAVA PALACE HOTEL
15	PARKLAND
16	ROYAL SUMATRA
17	PT.STAR CAMTE
18	HANKOOK CERAMIC
19	WOORI BANK
20	PT.BOSUNG INDONESIA

21	PT.HANSUNG
22	PT.GAYA INDAHKHARISMA
23	무궁화유통
24	KBS WORLD
25	데일리 인도네시아
26	한인포스트
27	인도웹
28	K-TV
29	자카르타 경제신문
30	일요신문
31	JAKARTA INSTITUTE OF THE ARTS

#### 후원

No.	기관명
1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2	KOICA
3	한국문화원
4	한국관광공사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6	KEMENTERIAN KOPERASI DAN USAHA KECIL DAN MENENGAH REPUBLIK INDONESIA



## 대사관 신년 인사식



조태영대사



백성택 주아세안대표부대사



신기엽회장

2014년 1월5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1층 대강당에서 인사식을 가졌다. 대사관 직원, 한인 단체 주요 인사 및 각계 동포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 행사는 국민의례에 이어 표창장 시상식으로 이어졌다.

대통령 표창에는 배도운 한인회수석부회장, 재외동포재단이사장상에는 최장오 시인이 수상하였다. 이어 각기관과 개인에게 대사표창이 수여되었다. (수상자 명단 참조)

조태영 대사는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정부는 2015년은 통일을 위해 힘쓰는 한해가 될 것이다.

이에 재인도네시아 동포들도 마음을 모아 정부의 노력에 함께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하고 “대사관도 새로운 조꼬위 정부와 양국간 돈독한 관계 유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동포사회와 더욱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기엽 한인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해 말 2014 한-인도네시아 우정의 페스티벌은 잊지 못할 행사이다. 양국 국민의 교류의 장, 공감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동참해 준 동포들에게 감동 받았다”고 말하고 “새해들어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화된 원칙주의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을 숙선하여 지키는 한인사회 리더들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하였다.

이어 백성택 주아세안대표부 대사는 아세안의 외교, 경제의 중심이 되고있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위해 재 인도네시아 동포들의 관심을 부탁하였다.

공식행사를 마친 후 각계 인사는 새해 인사를 주고 받으며 교제를 나눴다.



대통령표창:배도운 수석부회장



재외동포재단이사장상: 최장오 시인





## 대사표창 수여자명단

추천기관	수상자	직책	사진
땅그랑한인회	Tangerang Korea		1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한-인니문화연구원		2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헤리티지소사이어티 코리안섹션		3
민주평통	홍권표	민주평통 동남아남부분부자문위원	4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	김육찬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 사무총장	5
자유총연맹	김한태	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부회장	6
재인도네시아 한인문예총	이수진	재인도네시아한인민술협회 회장	7
대한체육회	이종후	대한체육회 선수단 단장	8
옥타	성기채	옥타 자카르타지회 사무총장	9
신발협의회	박성대	신발협의회 부회장	10
모발협의회	이광희	모발협의회 고문	11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박재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부회장	12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방진학	PT. HAN SUNG INDONESIA 대표	13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신동수	PT. MITRA CMB INDONESIA 대표이사	14
땅그랑한인회	전덕천	PT. MITRA METAL 대표	15
땅그랑한인회	고재천	무지개 공부방 설립운영(선교사)	16
보고르한인회	김양순	PT. YOUNG NAM 이사	17
족자한인회	김영울	모발협의회 회장	18
찌까랑한인회	김갑수	찌까랑 한인회 총무이사	19
찌까랑한인회	진민갑	PT. BYUNG HWA INDONESIA 법인장	20
즈빠라한인회	이옥근	즈빠라 한인회 부회장	21
바탐한인회	주정만	바탐 한인회 부회장	22
바탐한인회	이상구	바탐 한인회 총무	23
중부자바한인회	신방균	PT. SAM KYEONG 이사	24
중부자바한인회	문성구	PT. BASILLIEA 사장	25
중부자바한인회	양복중	PT. NESIA PAN-PACIFIC KNIT 공장장	26
동부자바한인회	이강하		27
동부자바한인회	박기형		28
동부자바한인회	전영준		29



## 2014 한-인도네시아 CSR 포럼 개최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014.12.16. (화) 샹그릴라 호텔에서 ‘2014한·인도네시아 CSR 포럼’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Win-Win Partnership and Enhanced Collaboration)이란 주제로 재이니상공회의소(KOCHAM), 인도네시아 경영자총연합(APINDO), 인도네시아 투자청(BKPM)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는 조태영 대사, 송창근 재이니상공회의소 회장, Sofjan Wanandi APINDO 상임고문, Azhar Lubis BKPM 부청장, Wayan Dipta 중소기업부 차관 등 양국 기업인, 정부 관계자 및 언론인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한-인니 양국관계의 급속한 발전으로 증가하는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 기업들의 CSR 활동을 널리 알리고, 양국간 상생협력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금번 포럼에서는 인사말씀과 CSR 동영상 시연에 이어, CSR 책자(인니어) 발표 및 전달식, CSR 우수업체 시상 및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조태영 대사는 금번 포럼이 조코위 신정부 출범을 배경으로 우리 기업들의 CSR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양국간 동반성장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니 지역사회와의 공동 발전을 위해 CSR 활동과 OVOP 프로그램에 더욱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Sofjan 상임고문, Azhar 부청장, Wayan Dipta 차관 등 인니측 인사들은 조코위 신정부의 출범으로 인니 진출 외국기업들의 지속적인 CSR 활동이 기업 경영에 있어 성공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한·인니 양국 기업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니 사회 발전에 기여해 나가길 희망했다.

금번 포럼에서는 매년 KOTRA-BKPM 공동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인니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시상식이 함께 개최되어 CSR 우수업체 5개 기업이 수상을 하였는바, 이를 통해 인니 진출 우리 기업의 이미지가 제고되고, 앞으로 한·인니 양국간 동반성장을 위한 CSR 활동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 삼성전자 / 인니
- BKPM 청장상 : LG전자
- 주인도네시아 대사상 : 삼익약기, DADA (봉제업체)
- KOTRA 사장상 : 한국세라믹

# 정의화 의장, 조코 위도도 인니 대통령과 회담

## - 조코위 대통령 “한·인니 세파협상 재개하겠다” -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2.22(월) 오후 2시 자카르타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을 만나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체결, 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 등 5개국의 첫 글자) 의회 간 협의체 구성 등 양국 간의 주요협력사업 및 향후 경제협력에 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정의장은 먼저 “취임 이후 국정 현안에 바쁘신데 지난 12. 11 ~ 12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성공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고 말했다.

“현재 양국 간에 다소 이견이 있어서 협상이 계속 지연이 되는데, 진정으로 상호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win-win 협정이 될 수 있도록 양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정의장의 CEPA 협상 재개 요청에 대해 조코위 대통령은 “CEPA 협상을 즉각 재개하겠다” 고 답했다.

### 7월 한·인니 5개 중견국(MIKTA) 국회의장 회담 서울 개최 공망

정의장은 “5개국의 단합은 상호간에 국내적으로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발전과 안정을 확보함에 있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장은 이어 “이 같은 상황 인식하에 현재 외교장관 레벨에서만 활동하고 있는 MIKTA 각 회원국들의 정치적 동력을 제공함으로써 MIKTA의 존재감과 결속력을 확고히 하고자 내년 7월 초 한국에서 MIKTA 국회의장회의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며 조코위 대통령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코위 대통령은 배석한 인니 외교부장관으로부터 MIKTA 관련 진행 현황을 보고받고 전적인 공감의 뜻을 밝혔다.

정의장은 조코위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인도네시아 의회에서 즐키플리 하산(Zulkifli Hasan) 국민평의회(MPR) 의장 및 이르만 구스만(Irman Gusman) 상원(DPD) 의장과 연쇄회담을 갖고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MIKTA 의회 간 협의체 구성 등 정부 및 의회 간 협력 방안과 양국민간의 소통과 이해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정의장은 이어 “양국관계는 73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교역규모 125배, 인적교류 150배 등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 이 같은 양국관계를 양자차원 뿐 아니라 핵심 중견국들 간 결속을 통해 보다 공고히 하고 또 보다 확장시키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방문했다” 고 밝혔다.

정의장은 또한 “교역 투자 확대와 한·인니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체결추진이 필요하다





## 2014 코참 상공인의 날 인도네시아-한국-미국 상공회의소 MOU 체결

4일, 인도네시아 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송창근)는 땅거랑에 위치한 임페리얼 골프클럽에서 코참 회원들 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2014 코참 상공인의 날’을 개최하고, 인도네시아 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 앤드류 화이트)와 인도네시아 양국 회원기업 우호증진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조태영 주인니 한국대사, 로버트 블레이크 주인니 미국대사, 송창근 재인니 한인상의 회장, 브라이언 아놀드 주인니 미국상의 회장과 한국, 미국, 인도네시아 상공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송창근 코참회장은 “인도네시아 외국인 경제단체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코참과 암참의 상호 협력을 위한 MOU체결은 회원기업인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경제단체에도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며 “한국 미국 경제인들의 협력으로 현 정부에 조화로운 공동체로 형성해나가자”고 전했다.

조태영 대사는 축사에서 “작년은 한미동맹 60주년이였다. 양국이 앞으로 60년 간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하기를 기대한다”며 “새 정부 출범에

맞춘 MOU 체결은 양국 간의 동맹관계에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축하하였다.

로버트 블레이크 대사는 “조코위 새 정부 출범이 인도네시아의 주요 투자국인 한국과 미국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면 인도네시아 내에서 양국이 얻을 수 있는 사업적 기회들이 극대화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코참과 암참은 이번 MOU를 통해 인도네시아 내에 좀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 공단지역 노조시위 관련, 메트로자야경찰청 정보보안국장 면담

**주** 인도네시아대사관(대사 조태영)의 김용운 고용노동관과 정진관 경찰영사는 지난 11월 20, 21일과 25일 버카시와 땅그랑에서 있었던 노조의 불법시위(스위핑) 문제와 관련하여 12월 4일(금) 오전, 수도권을 관할하는 메트로자야지방경찰청(Polda Metro Jaya) Sutanto 정보보안국장을 면담하였음.

대사관측은 경찰당국에 버카시와 땅그랑에서 또 다시 스위핑이 발생하고 많은 기업들이 타의에 의해 조업을 중단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하고 매년 최저임금 인상시기에 반복되는 시위로 인해 한국기업들의 우려가 크다고 우려를 전달하였음.

이에 대해 Sutanto 국장은 시위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관할경찰서에서, 규모가 큰 경우 지방청과 본청 인력이 투입된다고 밝히고,

- 노조가 합법적으로 시위를 할 권리는 있으나 버카시와 땅그랑에서 노조들이 톨게이트를 막거나 조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범죄수사대에서 시위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음.

대사관측은 우리기업인들은 특히 기업들이 스위핑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경찰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하자 Sutanto국장은 향후 현장에서 경찰이 불법행위를 방치하면 메트로자야 경찰청 감찰부서로 신고해달라고 하였음.

또한, 대사관측에서는 12월 10일(수) 예정되어 있는 노조연합의 최저임금 인상요구 및 유가인상 반대 시위 관련한 대책을 문의하자 Sutanto 국장은 현재 KSPSI 등 노조들이 연합하여 자카르타와 수도권 공단지역에서 시위를 계획하고 있어 노조관계자들을 호출하여 간담회를 갖고 스위핑 등 불법행위를 하지 말도록 경고할 것이라고 답함.

한편, Sutanto국장은 자신과 배석한 정보보안국 과장급 간부들의 휴대폰 번호를 직접 알려주면서 향후 한국기업의 노동관련 시위 등 문제가 있을 경우 바로 알려주시면 조치하겠다고 약속하였음.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향후에도 노동문제는 물론 일반사건, 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 등 우리 동포사회 및 한국기업의 안전을 위해 인도네시아 경찰당국과 긴밀히 협조해나갈 계획임.

※ 정보보안국(Intelkam)은 정치, 노동, 시위, 중요사건 등 치안관련 제반 사안을 총괄하는 부서임





##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가게

**인**도네시아 아름다운가게(이사장 김상태)는 12월 22일 자카르타에서 그동안의 수익금 중 일부를 현지 나환자촌과 유치원을 운영하는 땅그랑 교민교회(김배중 목사)와 밥퍼사역(최원금 목사)에 각각 2천만루피아 (Rp.20.000.000) 를 후원금으로 전달하였다.

후원금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김상태 이사장은 “자리이타” 자신을 이롭게하고 남을 이롭게 한다는 마음으로 인도네시아 속의 한인사회가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소외된 이웃들과의 아름다운 나눔의 소통기관으로 가교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신간 소개

## 바람을 바라보다 / 시집

저자 : 윤소정  
출판사 : 파랑새미디어  
출간일 : 2014년 12월 05일

93년생 23살의 젊은 시인, 윤소정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와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학창시절을 인도네시아에서 보냈으며 이곳,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JIKS)를 졸업했습니다. 어린 시절 해외생활 시작을 동기로 시를 쓰기 시작해 고등학생 때 첫 시집을 내놓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계간지 ‘문학시대’를 통해 등단을 하고 이번 ‘바람을 바라보다’는 4번째 책입니다.

바람은 차갑습니다. 마음이 시릴수록 더욱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어떠한 이유든, 이유가 없어도 모두가 시림을 내뿜으려 애씁니다. 따뜻해진 마음이 안정적이라 생각해서일까요? 하지만 바람이 불 때, 나 그리고 타인을 위해 시림을 안아보는 것이 마음의 상처를 바라보는 진심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바람을 바라보다’에 담은 의미가 큼니다. 형상화 되지 않은 바람을 바라보는 것은 곧 우리들 각자의 마음을 스친 상처 자국을 바라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긴박하게 하루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마음을 위해 쉬어가기도 위로하기도 하는 시간을 가져 보시면 어떨까요? 책을 통하여 그러한 시간을 독자 분들에게 선물하고자 합니다.

## 제1회 대한민국대사배 바둑대회

12월6일 대사관 영사과 건물 5층에서 바둑 대회가 열렸다.

2018년 아시안게임이 인도네시아로 유치 결정됨에 따라 바둑이 시범종목으로 채택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AGF/아시아바둑연맹/서대원회장이 조태영대사, 신기엽 한인회장, 재단법인 한국기원의 후원요청을 받아들여 행사를 진행되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이 대회는 많은 바둑애호가들의 참가로 바둑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아시아바둑연맹 서대원회장은 김달수사무총장, 현지바둑협회임원 2명, 인니바둑협회감독 김동명과 함께 현IOC위원인 IBU RITA 를 예방하여 자라나는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바둑이 지능 발달과 인성 품성 형성은 물론 인내심을 기르는데 더없이 훌륭한 두뇌 스포츠임을 설명하여 공감을 끌어냈다.

이어 체육청소년부도 방문, 선임국장과 관련부처장들과 만나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다.

인니인 53명 한국인 10명 일본인 1명 총 64명이 참가한 이 대회는 오전 9시에 대국을 시작 오후 4시30분 중국까지 시종일관 차분하면서도 긴장감이 넘치는 대국들을 펼쳐 참관한 대회 관계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번 대회는 대회창설을 건인한 서대원 AGF회장 적극적인 후원을 맡았던 한국대사관, 한인회, 한국기원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낸 큰 작품이라 하겠다.



인도네시아 바둑협회는 위자야 쟈터 내에 사무실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15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상호간의 대국, 김동명 기사의 지도기 강의 등을 통하여 경기력 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또, 월 1회는 각 지역 물의 빈 공간을 빌어 바둑 홍보와 더불어 초심자들의 가르침에 열정을 쏟고 있다. 그 결과 한.중.일. 3국이 각기 매년 개최하는 세계 아마추어 바둑대회에도 초청받아 중간 이상의 성적도 올리고 있다.

이번에 창설된 제1회 인니대사배 바둑대회 개최를 계기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한다.

바둑을 즐겨하는 재인니동포들의 기우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대해 본다.

자료제공:김동명(인도네시아 바둑협회 감독)



수상

A조 챔피언 DANIL 2위 방재웅 3위 김두영

B조 1위 장중근 2위MICHAEL PUTERA 3위 PIPIN FIMANSYAH.

C조 1위 KATHERINE ISABELLA 2위 FAHMY RODIFAN 3위 YULIANA



## 아름답고 잔잔한 감동의 연말 인우회 8주년 기념행사 열려



**인**우회는 지난 12일 땅그랑 모던랜드 C.C에서 8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 5년간 한글 교육을 위해 지원한 SMK NEGERI 1 외 한글을 배우는 학생 70여명과 교장선생님외 학교 교사분들을 초청해 8주년 기념행사와 연말 송년회를 함께 보냈다.

이중윤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글학교에서 한글을 배우고 꿈을 키우는 인도네시아 학생들을 보면서 새로운 감회와 용기를 가진다. 인우회에서 한글보급과 더 나은 한글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하면서 한글교육 보급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인우회는 창립초기 반듯주 내 많은 한국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에서 한글을 사용할 줄 아는 현지직원의 채용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해 현지 상업계 고등학교에 한글 교육을 지원해 그 인력이 우리 한인기업에 취업되도록 하고자 하는 활동을 시작으로 벌써 5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미 인우회 회원사에는 이 학교에서 한글을 배운 졸업생들을 채용해 근무하고 있으며 한인기업에 취업지원에도 애쓰고 있다.

인우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SMK NEGERI 1에서는 약 70여명의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다. 하지만 한글교육이 정규교과과목에 지정 되어 있지 않아 주1회 매주 토요일 특별활동 시간을 통해 수업 받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공부하고 있다.

인우회 이중윤 회장은 소수의 단일 모임으로 한글교육을 정규교과과정으로 만들기에는 많이 어

렵고 힘든 부분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한인단체 및 기관에서 힘을 모아 한글 보급을 위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필요함을 표했다.

인우회는 2007년 12월 창립되어 8년차 운영되어 오고있는 사회봉사 친목단체로서 현재 13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은인원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진 모임이지만 그동안의 활동은 어느 모임보다 더 선이 굵은 큰 활동을 해 왔다.

그동안의 활동을 보면 2006년 밀알학교에 1500만 루피아 지원과 동남아 한글학교에 500만루피아 지원, 현지 고아원(Yayasan Yatim Piatu Almahmudah)에 학자금외 쌀, TV, 냉장고, 옷등 많은 물품을 매년 지원하고 있고, 6년째 사랑의 전화 999에 결식가정돕기를 위한 쌀을 지원하고 한글 웅변대회에 1000만 루피아지원, 2011년 무지개 공부방(다문화가정), 수돗판 행사에 지원하고 있으며 SMK NEGERI 1에 교육비, 교재 전액 지원해 한글교육을 실시, 년 4회 제 회당 10여명의 장학금등 많은 사회 활동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2014 한해를 보내는 12월 현지 학생들과 연말을 함께 보내고 한글교육보급에 대한 애정을 학생들과 함께 하는 인우회의 연말행사는 그야말로 잔잔한 감동으로 밀려오는 아름다운 장면들이었다.

(기사제공:Media Korea)



## 제 95회 전국체육대회 재인도네시아 선수단 해단식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회장 양영연)는 19일, 자카르타 리즈칼튼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 95회 전국체육대회 재인도네시아 선수단 해단식’을 가졌다.

역동적인 말, 푸른 말띠해로 체육회가 그 어느 때보다 기대를 모았던 한해를 결산하는 이 날 행사에는 조태영 대사, 한인회 신기엽회장, 코참 송창근 회장 등 체육회 임원과 회원 및 후원사 대표 그리고 일반 교민들이 참석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을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재인도네시아 선수단(단장 이종후, 회장 양영연, 기수 고영철)은 지난 10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 제 95회 전국체육대회, 해외동포선수단으로 출전했다. 선수와 임원 120명은 축구, 테니스, 볼링, 검도 등 총 8개 종목에 출전하여 은메달 5개, 동메달 7개, 총 12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올렸다.

조태영 대사는 축사를 통하여 “결코 쉽지 않은 성적을 올린 것에 박수를 보낸다”며 “한인가족에 만복이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기엽 회장은 “제주에서 인도네시아를 각인시키고 온 단장님과 회장님 등 한인동포를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며 “우리 한인사회가 전 세계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치단결하여 일궈낸 결과다”고 전했다.

양영연 회장은 답사를 통하여 “선수단은 이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가고자 한다. 이젠 본인의 업무에 정진하길 바라며 선수단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며 선수단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선수단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했다.

축사와 답사가 끝난 뒤, 체육회 발전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이들을 대상으로 공로패 및 감사장이 전달되었다. 이어 2부 만찬에서는 김홍국, 적우 등 초대가수의 공연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체육인의 밤 행사는 그 막을 내렸다.

내년의 전국체육대회는 강원도에서 펼쳐진다.





## 한국외국어대 ‘제2기 글로벌 CEO 과정’

**한**인상공회의소(회장 송창근, 이하 코참)과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원장 권석균, 이하 외대)가 주관하는 한국외국어대 ‘제2기 최고경영자과정(글로벌 CEO 프로그램)’이 11일 시작됐다.

자카르타 WISMA KORINDO 14층에서 입학식에는 수강생 19명을 포함한 원우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내 중소·중견기업 CEO의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 및 전략적 경영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8주 동안 진행된다. 앞서 4월 21일 코참은 한국외국어대 경영대학원과 글로벌 CEO과정 협약식을 체결했다. 7월 시작된 글로벌 CEO 1기 과정은 참여자 전원이 수료하여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교육은 12월 11일 권석균 교수의 ‘조직/인사관리’, 12월 18, 20일 채명수 교수의 ‘마케팅 관리’, 1월 8일과 10일 유태영 교수의 ‘경영전략’, 1월 15일과 17일 박진우 교수의 ‘재무 및 투자관리’, 1월 22일과 24일 박병일 교수의 ‘국제경영’, 1월 29일 고영훈 교수의 ‘인니문화의 원형’, 1월 31일 권석균교수의 ‘리더십과 변화경영’ 등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강의들로 구성 되어 진행된다.

이강현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축사를 통하여 “기본적 학문뿐만 아니라 학생의 자세로 돌아가 만족 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가기 바란다” 고 원우들을 격려했다.

권석균 원장은 “각자 비즈니스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어갈 수 있는 기회” 라며 “한달 반 동안 호흡하여 배움의 큰 공동체를 만들어나가자” 고 말했다.

## 동부자바한인회 송년행사 2014년도 한국 문화의 밤

2014년 12월13일 Pakuwon Imperial 에서 재인니 동부자바 한인회 송년의 밤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신입회장단의 소개와 한인회기 인계식이 있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친목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제공: 동부자바한인회장 정근영 )

### 재인니 동부자바 한인회 회장단 명단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회 장	배춘식(Bae Choon Shik )	1955.03.05	0811-332-4001 0811-33-7619	mapa1995@hanmail.net csbae2@hotmail.com
수석부회장	이경윤(Lee kyeong youn )	1961.02.05	081-732-1833	jhp-indo@hanmail.net
부 회 장				
사무총장	김태현(Kim tae hyun)	1968.05.29	0818-321-332	gasan-kim@hanmail.net
수석총무	정상원(Jeong Sang Won)	1979.04.27	0812-3373-8798	jsangwon@naver.com
총 무	배기보(Bae ki bo)	1986.06.15	0812-3251-5518	baekibo@gmail.com



## 와인에 흠뻑 취한 열린강좌

지난 12월 6일과 13일 토요일, 한.인니 문화연구원 제 31회-32회 열린강좌가 열렸다. 2주에 걸쳐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와인 고르고 마시는 법’이라는 주제로 와인 강좌를 개최하였다. 20명의 신청자들이 모인 가운데, 와인 라벨을 읽고 코르크 마개를 따는 기초적인 방법부터 시작해 와인 테이스팅 노트를 작성하는 방법까지 다양하고도 실용적인 내용의 강좌가 진행되었다. 레드, 화이트, 로제, 스파클링 와인으로 주제를 나누어 크리스마스에 즐기기 좋은 와인을 직접 시음하며 간단한 와인 안주를 만드는 법도 함께 배우는 알찬 시간이었다.

프랑스 와인과 이태리 와인의 역사와 지역별 특징 등을 이론으로 공부하고 각 포도 품종별 맛의 차이를 이해하는 단계까지 아우르는 강의로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강좌를 진행한 이진호 마스터는 일본에서 커피 마스터 과정을 공부하고

와인 소믈리에 자격증을 소지한 경력자답게 노련하고도 친절한 강의와 쉬운 설명으로 강좌에 참석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와인에 다가갈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샤를르 보들레르 『취하라』 시처럼 와인에 흠뻑 취한 시간이었다. “시간의 고통 받는 노예가 되지 않으려거든 씬 없이 취하라! 술에든, 시에든, 미덕에든, 그대 원하는 것에.”

한.인니 문화연구원의 송재선 이사장은 참가자들의 강좌를 대하는 열의에 감동하였다고 소감을 밝히며 교민들이 원하는 실용적인 강좌를 더 다양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공 경 원장은 2015년부터는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예술, 생활 정보들을 공유하는데 집중할 것이며 교민들이 원하는 강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열린 강좌를 더욱 깊이 있게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채인숙 한\*인니문화연구원 부원장)





2014 한-인도네시아 우정의 페스티벌/UI 학생들의 K-pop 댄스 공연

풍속으로 재현되는 젊음은 모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며,  
때로는 즐겁게, 때로는 아프게  
변모하며 성장한다..

-편집부-

## KOICA, 수마트라 유료도로사업 타당성 조사 최종 보고회



김병관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장과 Harris Batubara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 도로국계획 국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

KOICA가 인도네시아의 사회간접자본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온 ‘수마트라 유료도로 제1구간 타당성조사 사업’의 성과물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역의 발전과 지역내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마트라 남북중단 유료도로 건설의 실현에 기여한다.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은 지난 12월 17일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와 공동으로 동 사업의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보고회에는 인니측에서 공공사업부의 Mr. Harris Batubara 도로국계획국장, Mr. Herry Trisaputra Zuna 도로국 정책전략부국장, Mr. Ir.Subagyo 기술국부국장, 도로건설 예정지인 북수마트라, 리아우, 람퐁, 남수마트라 주 관계자와 김병관 KOICA 소장, 이현승 도로공사 기술처장 및 도화동부컨소시엄 및 한국 종합기술 등 우리측 사업수행업체 관계자 총 60여명이 참석하였다.

KOICA는 금번 사업을 통해 북부 두마이-뜨빙핑기 3간 및 바까우흐니-빨렘방 구간 총 560km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재무성 분석 및 환경영향평가 최종결과를 인도네시아 정부에 전달하게 된다.

김병관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장은 최종보고회 축사를 통해 수마트라 고속도로 건설이 인적, 물적, 노동과 통행에 기여함으로써 수마트라 지역의 경제발전은 물론 인도네시아 전역의 잠재력을 발현시킬 수 있게되기를 희망하였다. 공공사업부 Mr. Harris Batubara 도로국계획 국장 또한 트랜스 수마트라 고속도로의 전략적인 중요성과 신속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정부와 KOICA의 지원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동 사업결과를 토대로 다각적인 재정확보 방안 강구와 함께 토지수용 및 도로 건설 등 실제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 코이카, (주)생과 함께 발리주 타바난군 정수처리시설 준공식 개최

정 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이사장 김영목)은 지난 12월 23일, (주)생과 함께 추진하는 기업협력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발리주 타바난(Tabanan)군에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하게 될 정수처리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우리 측에서 KOICA 김병관 소장, (주)생 박달준 사장, 인도네시아 측에서 타바난군 수도국 니 뿌뚜 에까 위르야스투디(Ni Putu Eka Wiryastuti) 군수의 대리인 및 수도국 관계자 약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동 정수처리시설이 준공된 발리 타바난군은 2010년 기준 총 주민 대비 평균 상수도 보급률이 56%이며, 군내에는 총 6개의 정수처리시설이 있지만 시설이 노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송수배관 누수로 인해 깨끗한 물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생산된 정수는 관광지 및 리조트 등 상공업 용수로 우선 공급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정수 공급에 소외되고, 무차별적인 지하수 사용으로 인해 안정적인 물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주)생은 수처리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지관리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저에너지를 사용하여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최적의 정수처리시설을 코이카와 협력하여 타바난군에 설치하였다. 이를 통하여 빈곤계층 중 하위 10%에 속하는 약 천 여명의 주민들에게는 상수도를 무상 공급하며, 그 이외의 주민들에게는 저렴한 요금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징수된 상수도 요금은 노후배관 등의 지속적인 교체와 정수처리시설 운영비로 충당된다.

동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은 기초 생활 요건 중 하나인 안전한 음용수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수인성 질병 발병률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

다. 또한 지역 내에서 고용한 현지 직원에게 기술 및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수처리 분야 전문 기술자를 양성하는 효과도 거두게 될 전망이다.

동 행사에서 (주)생 박달준 사장은 “중소기업임에도 자체 개발 정수 시스템을 이용하여 글로벌 CSR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은 의미 있는 본보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지역 주민과 한국 기업이 소통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전하였다. 이에 타바난군 수도국 니 뿌뚜 에까 위르야스투디(Ni Putu Eka Wiryastuti) 군수는 대리인을 통하여 “동 정수처리시설이 경제적



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질병 발병률까지 낮추게 되어 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를 표하였다.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 김병관 소장은 “인간답게 사는 삶에 있어 물은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조건이며, 동 사업은 타바난군 정부와 주민, (주)생과 KOICA 모두의 협력이 있었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동 사업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코이카는 앞으로도 전문성과 역량 있는 우리나라 기업과 합심하여 개발도상국 소외계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 제5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인터넷 문학상 수상자 및 수상작 발표

구 분/ 시상자	일반부		구 분/ 시상자	학생부	
	이 름	제 목		이 름	제 목
대 상 주인니 한국대사상	윤난희	세단어	대 상 주ASEAN 대사상	김혜인 JIKS 10학년	자띠나무 (Pohon Jati)로 살아라
최우수상 재인니 한인회장상	방정환	허영 모지를 찾아서	최우수상 재인니상공 회의소회장상	박다솔 JIKS 11학년	낭만이 있는 라플레스 (Cibubur Raffles)
우수상 한*인니문화 연구원 이사장상	이정희	파파야 나무처럼	우수상 자카르타한국 국제학교장상	김소영 JIKS 11학년	병아완 솔로 (Bengawan Solo)
우수상 한*인니문화 연구원장상	최희정	손 없는 그들에게 내미는 손길	우수상 한국문인협회 인니지부장상	간형찬 SPHI 12학년	말랑(Malang) 할머니
특별출품	이재민 1회 대상 수상자	울지마. 슬퍼마	특별상 한*인니문화 연구원장상	Devi Satriadewi UNJ	따만미니 연가(口口) (Taman mini)
장려상 한*인니문화 연구원상  (가나다순)	강성윤	인도네시아의 소중한 추억들	장려상 한*인니문화 연구원상  (가나다순)	김용주 BIS 11학년	옆집 까각(Kakak)을 불러와라
	김일순	우리가락 좋은 것이여		문현윤 JIKS 11학년	나의 추억 나의 보물
	신수빈	적도와 별		서정아 JIKS 11학년	가슴이 분주하다
	유서연	별을 보고 싶으면 하늘을 보아라		이재원 GJS 11학년	알수록 재미있는 인도네시아
	-	-		홍수빈 JIKS 8학년	인니의 색깔과 향기에 젖다

\* 심사위원 : 수필가 서미숙, 방송작가 채인숙, 문학평론가 신영덕

\* 특별출품 : 이재민님은 제1회 대상 수상자로 제5회 인터넷 문학상 시상식을 풍성하게 빛내주시기 위해 작품을 주셨습니다. 이에 시상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한인회 한\*이니문화연구원

제5회 인터넷 문학상 시상식  
Indonesia Dance Festival  
- Darī Sabang sampāi Merauke-

Waktu : 17:00~19:00 Sabtu 10 Jan 2015.

Lokasi : Lotte Shopping Avenue Lt. 4, Ice Palace

Jl. Profesor Dr. Satrio Ciputra World 1 Karet Kuningan

축하공연 전통민속무용단

수마트라·자바·칼리만탄·누사똥가라·솔라웨시·파푸아

한,이니문화연구원의 인터넷문학상 시상식이 어느덧 5회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많은 한인들이 인터넷문학상을 통하여 숨겨진 문학의 꿈과 열정, 창작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본 연구원은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제5회 시상식을 수마트라에서 파푸아를 아우르는 전통무용과 함께 열고자합니다. 시상식을 위해 인도네시아 민속무용단이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축하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아름다운 인도네시아 전통예술에 흠뻑 취해 보시길 바랍니다.

후원: 재외동포재단 / PT.TAEWON INDONESIA / PT.PRATAMA ABADI

참가신청: 한.이니문화연구원 네이버밴드 / lovekoin@hotmail.com

SMS신청: 채인숙 0815-8479-7879 정윤희 0815-1901-0570

\*4시 30분까지 입장해주십시오.

# JKS

## JKS 초등 '인도네시아어 말하기 대회' 열려

- 지역 전문가로 걸음마를 시작하다 -

자 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승익)에서는 12월 17일 초등 인도네시아어 말하기 대회가 개최되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 대회는 학생들의 인도네시아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학습 동기를 부여하려는 취지로 실시되었다.

본선에 앞서 예선은 인도네시아어를 정규교과로 배우고 있는 3~6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암기를 통한 단순한 말하기 기능보다는 인도네시아어 사용 능력 전반을 심사하기 위하여 수업시간 중에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작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학년별로 3명씩 총 12명의 우수 작문을 써낸 학생들에게 본선 진출의 기회가 주어졌다. 나래홀에서 열린 본선 참가자들은 학년에 관계없이 경쟁하여 최우수는 송수정(4-2), 우수는 박유나(5-3), 배은준(4-2), 이세린(3-3) 학생이 그 외 8명이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심사위원으로는 UI 대학교(Universitas Indonesia)학과장인 Ibu Nitrasatris Handayani와 우의대 교수인 Ibu Priscilla F. Limbong가 수고해 주었다.



JKS는 말하기 대회 이외에도 Sarang Kata라는 단어장을 활용한 인도네시아어 단어 경시대회 및 주 1회 인도네시아의 전통의상인 바틱을 입고 등교하는 바틱데이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인도네시아의 언어와 문화를 가까이하며

Glocalization(Global + Local)한 지역전문가의 꿈을 키우도록 격려하고 있다.





11월 28일 지스 고등학교는 해마다 열리는 유엔 데이 (United Nations Day) 를 개최했다. 유엔 데이는 학생들이 여러 국적의 문화를 서로 알아가는 날이다.

약 60개의 국적을 자랑하는 지스의 대표적인 축제들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학생들이 여러 가지 문화를 최대한 맛볼 수 있기 위하여 오전에 모든 수업들이 평소보다는 짧게 이루어지고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먹어 볼 수 있는 점심 시간을 갖은 다음 학생들이 몇 달간 준비해 온 공연들을 관람한다.

모든 수업이 끝난 다음에 열렸던 점심 시간은 학생들이 음식을 통해 여러 문화를 접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미국과 한국은 물론 인도네시아, 인디아, 중국, 일본, 태국,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라틴 아메리카, 등 여러 나라의 음식 부스 (food booth) 가 있어 각 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을 선보였다. 학부모님들이 모든 부스들을 맡으셨고 음식 또한 만드셔서 유엔 데이의 Food festival 은 학부모님들의 공이 컸다.

Food festival 이 끝나고 나서 전 고등학생들이 모여 어셈블리가 열렸다. 지스 교장 Tim Carr 는 여러 문화에 대한 중요성과 국제주의에 대한 감명 깊은 말들로 어셈블리를 시작하여 학생들의 애국심과 학교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솟아나게 하였다. 또한 학교의 이름이 Jakarta International School 에서 Jakarta Intercultural School 로 바뀌어야 했던 상황을 알려 주었다. 정부에서 내



(학생기자 김혜경)



린 법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지만, 다문화를 중요시 여기는 지스에게는 바뀐 이름이 학교에게 더 적합하여 변화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고 말 하였다.

교장 선생님의 말이 끝나고 Flag Barrier Ceremony 가 열렸다. 이 세레모니에서는 학생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국기를 들고 무대위로 올라가 국기를 흔든다. 한국 국기는 12학년 이주희 학생이 들었고 UN 국기는 12학년 조화진 학생이 들었다.

곧이어 학생들은 오랜 시간 동안 연습해 온 공연들을 하였다. 중국의 무술과 춤을 결합한 공연, 인도네시아의 가멜란 (Gamelan) 과 전통적인 춤을 결합한 공연, 일본과 인디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춤 공연도 선보였다. 그리고 한국은 피날레를 맞아 부채춤과 난타로 공연들을 마무리 하였다.

이것은 여러 국가와 문화 가운데에도 한국의 존재감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었다. 학생들은 유엔데이를 통해 여러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여 서로를 알아 갈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동포안내문 2014. 12. 24(수요일)

Tel : 021-2967-2580,  
Fax : 021-2967-2581, 2556,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go.kr)

## 이민청 단속 동향 및 재외동포 유의 사항안내

최근들어 주재국 이민청이 체류외국인에 대한 조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들께서는 아래 안내문을 참조하여 이민청 단속으로 인해 애로를 겪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민청 단속으로 인해 이민청에 구류조치 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 즉시 대사관에 연락( 대사관 긴급전화 : 0811-852-446 { 평일 오후 4:30~익일 오전 8:30까지, 공휴일 및 주말은 24시간 } 또는 영사과 대표전화:021-2967-2580 평일 오전 8:30~오후 4:30) 함으로써 필요한 상담 및 지원을 받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 ◆ 최근 이민청 단속 동향

○ 땅그랑, 데벡, 보고르 등 외국인이 많이 체류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민청, 경찰 등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단속은 내년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우리 국민만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며 체류외국인의 국적 등에 상관없이 수행되어 온 연례적인 단속활동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대사관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위 합동단속에 적발되어 지방이민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재외동포는 2명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추가적인 정보가 파악되거나 이민청의 단속활동 결과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대사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 이민청의 단속은 주로 ① 유효한 여권 소지 여부 ② 도착비자 또는 끼따스의 체류기간 초과 여부 ③ 신고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 등입니다.

### ◆ 재외동포들의 대응요령 안내

○ 재외동포들께서 이민청의 단속을 당하게 되면 많이 놀라고 당황하기 쉬우며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청의 단속은 주재국의 이민법에 따른 합법적인 법집행 과정이라는 점을 양지하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특별한 위법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민청 직원이 요청하는 여권 등 자료를 제시하면 대부분 큰 문제없이 상황이 종료됩니다.

- 특히, 단속과정에서 이민청 직원들과 고성 등 언쟁, 불필요한 마찰 등이 발생할 경우 조사절차의 지연, 사무소로의 연행 등 불편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 대응은 최대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민법의 주요 관련규정 안내》

◆ 이민청직원 등 단속권한있는 공무원은 외국인에 대해 여권, 체류허가서 등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5천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음

◆ 불법체류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아래와 같이 조치될 수 있음

- 불법체류기간이 60일 이하인 경우 : 벌금(1일

당 30만 루피) 납부 후 강제퇴거됨, 이 경우 통상적으로 입국금지 조치는 없음

- 불법체류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 : 강제퇴거 및 입국규제 조치 됨. 다만, 불법체류기간이 장기 또는 위반조 문서 등과 관련될 때는 형사기소되기도 함

?결혼·사망 등 신분변동 사항, 국적·직업·주소·스폰서 등 변동 시 14일 이내에 관할 이민청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5천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음

○ 여권, 끼따스 등을 항상 휴대하는 것을 권고해드립니다.

- 이민청직원들의 단속 시에는 기본적으로 여권 제시를 요구하게 되므로 여권 등을 미소지한 경우, 신원확인 등을 위해 이민청 사무소로 연행되어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 부득이 여권, 끼따스 등 원본을 소지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복사본을 반드시 가지고 다니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권 원본의 소지자와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 회사 내에 직원들의 여권 등을 일괄 보관하는 경우, 여권을 반드시 명의인이 직접 소지하고 본인 책임 하에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끼따스 연장신청 등 사유로 여권이 주재국 이민청사무소에 제출된 경우에는, 이민청에서 발급한 ‘여권보관증’ 과 ‘여권 복사본’ 을 휴대하고 다니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에이전트 등을 시켜서 끼따스 연장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필히 여권보관증을 수령하여 전달해 주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보관증에는 본인 사진 등이 나오지 않으므로 신원확인 등에 애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여권복사본도 함께 휴대하고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민청직원들은 단속 시 “집행명령서(Surat Perintah)” 를 해당 외국인에게 제시해야 하므로, 이민청직원을 사칭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수상한 사람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집행명령서(Surat Perintah)” 를 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집행명령서에는 해당 이민청직원의 소속사무소, 조사 등 권한의 범위, 사무소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단속권한이 있는자인지 알 수 있음

- 다만, 이민청직원이 이민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에는 “집행명령서(Surat Perintah)” 없이도 조사·단속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이민청직원 신분증을 대신 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와같은 방법으로 신분이 확인되지 않거나 단속을 사칭한 수상한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대사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사관 긴급전화 : 0811-852-446 { 평일 오후 4:30~익일 오전 8:30까지, 공휴일 및 주말은 24시간 } 또는 영사과 대표전화:021-2967-2580 평일 오전 8:30~오후 4:30)

○ 불법체류, 또는 주소지 등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

- 주재국 이민법 등 현행법 위반이므로 적발될 경우, 이민법에 따라 강제퇴거 등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주재국의 주권행사 영역이므로 그 절차에 있어 인권침해 또는 위법성 등 문제가 없는 한 정당한 법집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재외동포들께서는 평소에 위와같은 이민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점검·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나, 이미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위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불법체류의 경우, 그 기간이 60일을 넘어 수 개월 이상 장기화되거나 유효한 여권없이 불법체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민청 단속에 적발되는 것보다 자진 신고의 형태를 취해야 정상참작에 유리하며, 사전에 영사과를 방문하여 영사면담을 받고 관련절차 등을 안내받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 이민청에 확인한 결과 국적·직업·주소·스폰서 등 변동 시 14일 이내에 관할 이민청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한 조속하게 변경내용을 신고할 경우 벌금 등 처벌없이 변경신고가 접수되어 정상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기간 도과에 따른 처벌규정 등이 미비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신고의무를 계속 불이행하다가 단속에 등 적발되는 경우에는 이민법 규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5천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재외동포들께서는 신고의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아직 미신고 상태이면 가능한 조속하게 관할 이민청사무소에 변경신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 도착비자 관련 유의사항

- 도착비자를 통하여 입국한 후 회사 등을 방문하거나, 사무실 내 컴퓨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체류자격외활동’ 혐의로 해당자 본인은 강제퇴거되고 관련회사 관계자도 벌금 등 조치를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주재국 이민법에 따르면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루피아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따라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급적 비즈니스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도록 하고, 부득이 도착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업무상 협의 등을 회사가 아닌 호텔 커피숍 등에서 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아울러, 도착비자를 통한 입국자의 경우에는 입국 시 제출한 출입국신고서상의 체류예정지와 실제 체류지가 다른 경우에는(예: 출입국신고서 상에는 00호텔로 기재했으나 실체는 △△아파트에 체류하는 경우) 이민법 위반으로 강제퇴거 등 조치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 ◆ 대사관의 향후 조치

○ 이민청에 요청하여 야간에 주거지를 단속하거나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의 불시단속 등 재외동포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단속방식을 최대한 지양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 이민청의 단속활동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연시(2014년 12월 25일~2015년 1월 31일) 기간에 영사과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재외동포들의 사건·사고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최근의 이민청 단속동향, 이민법 주요 규정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재외동포들께 신속하게 공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인도네시아에서의 또 다른 출발!  
대한민국 창조금융의 시작입니다.  
우리소다라 은행으로 출발합니다!  
성원해 주신 고객님 감사드립니다.

## 차량 유리 파손 후 절도 사건 주의

1. 최근, 노상 주차된 차량 유리창을 깨고 내부 소지품을 절취하는 사건이 자카르타 시내 중심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 주재국 언론 보도에 의하면 범인들은 자카르타 LTC Sun City 주차장, Pasific Place SCBD 부근 주차장 등 다수의 지역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 유리창을 파손한 후 내부 물품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으로 현재 수건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3. 동포 여러분들은 상기 사건 사례를 참조하시어 차량 주차시 가급적 경비원 등의 감시가 가능한 곳에 주차하시고 차량내부에 여권 및 귀중품들을 두고 내리시지 않도록 주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Tel : 021-2967-2580,  
Fax : 021-2967-2581, 2556,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go.kr>)

## 한인회 세월호성금 기탁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회장:신기엽)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침몰 참사에 고국의 동포들과 아픔을 나누고자 사랑의 마음을 담아 지난 12월8일 세월호성금 \$27, 300(USD)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하였다.



## 2014년 12월 월간 경제 브리핑

제공: 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 BPJS Kesehatan, 본격 시행은 내년 6월 말까지로 연기... 가입은 2015년 1월 1일까지!

건강사회보장(BPJS Kesehatan) 2015년 1월 시행을 둘러싸고 침예한 대립을 겪어온 노사와 그리고 정부가 지난 22일 MOU를 맺으며 본격 시행일정을 연기했다.

주요 합의 사항은 △경총 측은 기업들이 건강사회보장 등록을 늦어도 1월 1일까지 완료하도록 권고 △ 2015년 1월 1일까지 건강사회보장을 등록한 기업에 대해 보험료 납부 및 적용에 대해 2015년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짐 △ BPJS 측은 6개월 이내에 민간보험회사와의 조정을 진행해 제휴 의료기관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BPJS는 2014년 12월 말까지 모든 인도네시아인 직원과 6개월 이상 근무한 외국인 노동자가 건강사회보장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응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을 고집해오고 있다.

2013년 대통령령(Perpres)에 따르면 국영기업, 지방정부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등 직원은 의무적으로 2015년 1월 1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일반 국민은 2019년 1월 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기업의 경우 해당 대통령령을 어길 시 2차례에 걸쳐 경고장을 받게 된다. 2차 경고장 발부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으면 보험료와는 별개로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건물건축허가(Izin Mendirikan Bangunan) 등을 비롯한 사업승인을 취소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경총 측은 BPJS가 민간보험회사와 전혀 연계되지 않았고 기존 민간보험에 비해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적다고 비판하며 건강사회보장의 실시를 2019년까지 연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기업 내부에서 제공되는 의료혜택이 질적인 면에서 우수한 경우, 굳이 보험료를 부담하며 정부의 건강사회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임금 문제에서 노사정이 갈등을 겪었던 부분과는 달리 이번에는 노사와 정부 간 갈등이다. 건강사회보장의 보험금은 월급의 5%로 이 중 기업이 4%, 종업원이 1%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계속되는 임금인상에 한숨짓는 글로벌 기업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짓거나 옮긴 기업들의 부담감이 커져가고 있다.

중국을 대체할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주목 받아온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각국의 최저임금이 큰폭으로 올라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글로벌 기업들에 새로운 사업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의 가파른 임금인상에 대응해 임금 수준이 낮은 국가들로 생산기지를 옮겼으나 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업계획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0년 대비 2.6배에 달할 정도로 임금이 오른 결과 내년 주요 도시의 최저임금이 베이징이나 광저우 등 중국 주요 도시의 90%에 육박하며 저임금 생산직을 제외한 제조업체 과장급 이상 현지 직원의 월별 임금 또한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기업들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 이후 비용절감을 위해 동남아 지역을 주요 생산거점으로 지목해왔다. 중국 외에 새로운 생산거점을 찾는 ‘차이나 플러스원’ 전략으로 동남아 각국에 생산공장을 이전해 왔으며 현재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철수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임금 인상은 현지에 생산공장을 둔 기업에는 문제거리이나 소비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기업에는 기회가 되고 있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연간 가처분소득이 5,000달러 인도네시아 포함 동남아 주요 5개국 중산층 규모는 2012년 2억9000만명에서 2020년 3억8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본 유통점과 편의점이 대거 동남아 진출에 나서 사업 확장을 서두르고 있다.



### 오토바이 통행금지는 서민 죽이는 정책!

지난 22일 시민들이 자카르타 내 두 개의 주요 도로에서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하는 정책에 대한 반대시위를 하고 있다. 바수키 주지사는 자카르타 내 높은 오토바이 인명사고 발생률에 대한 대안과 아울러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이 방안을 제안했다.



### 크리스마스 이브 맞아 자정미사 진행

중앙 자카르타에 위치한 자카르타 대성당에서 지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자정 미사가 진행되었다. 천주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자정미사에 참석했다.

사진=아딧야(Aditya)

## 다시 외환위기 올까, 신흥시장 경제 대폭락 위험은 높지 않아

인도네시아 루피아화가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최저가로 폭락한 가운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러시아 루블화 폭락에 대한 우려가 아시아 이머징마켓(신흥시장)으로 번지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1990년대 후반 아시아 외환위기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시장 변동성은 크나 경제 대폭락으로 치달을 조짐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아시아 대부분 국가들은 미국 달러에 대해 고정환율제를 유지했다. 따라서 미국 달러 가치가 오르자 아시아 주요국 통화가 하락해 국가 경쟁력에 압박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 국가들이 변동환율제로 전환해 글로벌 금융 시장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됐다. 또한 외환보유액이 크게 늘었다. 신흥국들은 국가의 단기차입금은 줄이고 외환보유액을 자산담보보다 약 3배 이상으로 확보해놓고 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부채에 취약한 회사들에 대한 우려는 아직도 존재하며 중국의 침체된 성장속도와 늘어나는 차입비용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달러가치 또한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미르자아디타스와라 BI 수석 부총재는 1998년 외환위기때에는 정치적인 문제였다고 “인도네시아 경제 기반과 재정 상황은 개선되고 있어 최근 루피아화 하락은 일시적일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적극적으로 달러를 공급하고 채권을 매입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어 BI 관계자들은 16일 미 달러 매도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환율 방어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면서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뜻을 밝혔다.

한편, 러시아 루블화도 지난 17일 러시아 재무장관이 외환보유액을 매각하는 등 금융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유가도 몇 달간의 폭락 이후 급락세가 진정되고 있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최근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 ‘인내심을 가질 것’ 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신흥시장에 좋은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아직 인도네시아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여러 경제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내수경기활성화 정책이나 대규모 인프라사업 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남아있다” 고 강조했다.

자카르타  
경제일보

Jakarta Biz Daily  
Patra Office Tower 15th Fl 1501A  
Jl. Jend. Gatot Subroto Kav. 32-34  
Jakarta Selatan 12950

## 루피아화 환율 회복세로 접어드나

지난 몇 일 동안의 대규모 매도세가 끝나면서 신흥시장의 매도 압력이 풀림에 따라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5~16일 이틀 동안 루피아화 환율은 2% 가까이 떨어져 달러당 1만2,720루피아를 기록하며 지난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17일에는 약간 상승해 달러당 1만2,658루피아까지 올랐다.

회복 징후는 채권 시장에서도 나타났다. 10년 만기 기준 채권 수익률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의 개입에 따라 8.44%로 유지됐다. 존 라흐맛 만다리 증권 기업분석&조사 대표는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에게 지금이 인도네시아 주식 매입을 위한 적기.” 라고 말했다.

미국 메릴린치 은행은 인도네시아 내 루피아화 약세를 부추기는 특별한 국내 요인은 없다고 평가했으며, 모건 스탠리는 현 상황을 인도네시아 투자를 위한 적절한 시기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미르자 아디타스와라 BI 수석 부총재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걱정은 경상 수지 적자이다. 인도네시아 경상 수지는 올해 4분기에 61억 달러 하락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GDP의 2.8%에 달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내각과 경제부장관은 루피아화 환율 약세에 따라 하락세를 보이는 내수경기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조꼬 위도도 대통령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조꼬위 대통령은 “이와 같은 상황은 오히려 우리에게 호기이다. 특히 수출기반 산업은 빠르게 움직여 루피아화 약세의 이점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BI는 지난 15~16일 이틀 간 인도네시아 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의 무거운 매도압력 속에 1조 7000억 루피아의 국채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BI 자료에 따르면 적어도 17조 루피아 상당의 외국 자본이 인도네시아 주식 및 채권시장에서 빠져나갔으며, 이는 전세계 펀드매니저들이 신흥 경제의 위험자산을 재배치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짐작된다.

인도네시아의 5년 신용부도 스왑은 이달 초에 136 bps에서 17일 182.6bps로 치솟았다. 베이스스포인트(bps) 수치가 높은 만큼 국가의 부도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8일 루피아화 환율은 달러당 1만2,565루피아였으며, 이날 루피아화는 최저 1만2,539.5루피아, 최고 1만2,680루피아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 조코위 정부, 7% 경제 성장 가능할까?

조코위 정부는 지난 18일 국가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에서 2017년 경제 성장률을 7%대로 끌어 올릴 방침을 밝혔다. 아시아 개발 은행(ADB)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내년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은 5%대에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 측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여 건설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밤방 브르조노고로 재정부 장관은 올해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은 5년 만에 최저 수준인 5.1%에 불과하지만, 내년 이후에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2015년에는 5.8%, 2016년에는 6%대, 2017년에는 7%에 도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코위 정권은 지난 11월 중순, 연료 보조금을 인상하면서 보조금 지출을 줄이고 삭감분은 인프라 투자 등으로 돌려 경제 성장률을 높으려 애썼다.

한편, 안드리노프 차니야고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 장관은 조코위 정부가 7%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안드리노프 장관은 트리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7%대 경제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할 순 없지만 쉽지 않다”면서도 “조코위 정부가 이 나라의 인구를 잘 활용한다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인구 동태 관리를 잘하면 국가 경제가 1%정도 추가 성장할 수 있다. 조코위 정부가 전체 인구에 균등하게 부를 배분할 수 있다면, 7%대 경제 성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안드리노프 장관은 “조코위 대통령은 인구 통계, 인적 자원, 노동 경제에 대해 옳은 정책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19년까지의 중기적인 국가 개발 계획은 2015년 1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자카르타  
경제세일보

Jakarta Biz Daily

Patra Office Tower 15th Fl 1501A  
Jl. Jend. Gatot Subroto Kav. 32-34  
Jakarta Selatan 12950

# 1억 루피아 이상 거래 시 납세 번호 기재 의무화

인도네시아 정부는 19일, 내년부터 1억 루피아 이상 거래 시 거래자 마다 납세자 번호(NPWP) 기재 의무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의 목적은 고소득자에 대해 적정 세금을 부과해 세수를 늘리고 고액 거래에 대해 정부의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에 있다.

밤방 빠르마디 수만뜨리 브로조노고로 재무장관은 지난 18일 “이미 세법에 명시되어 있었지만, 제도화 되지 못했던 규정을 실행에 옮기는 것 뿐”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밤방 장관은 “예를 들어 5억 루피아 어치 사치품을 구매한 사람이 세금을 5,000만 루피아만 납세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이라고 지적하며, 내년 세금 징수율 상승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세수 증가를 위한 새로운 재무장관령 제정 및 추가적인 세부 사항 조정 계획이 있어왔다고 밝혔다. 밤방 장관의 이 같은 발언 배경에는 인도네시아 내에 오랫동안 자리 잡아온 불편한 진실과 관련이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개인 소득세 징수율은 1년 동안 겨우 4조 루피아 수준이다. 외국계 기업들에 대한 세수 확보 상황도 심각하다. 약 1,000개에 이르는 외국계 기업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내 전체 외국계 기업 대상 세금 징수율은 12% 이상이었던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또한, 이들의 탈세 방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들의 경우에는 심지어 조폭과 결탁하고 원천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무부는 경찰 및 부패방지위원회(KPK)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탈세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모로 접근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문제 해결에 의문이 남아있다.

납세번호 기재 의무화, 실효성은?

한편, 지난달 밤방 장관은 올해 인도네시아의 세수가 11월 14일을 기준으로 812조 루피아를 기록하여 종래 목표액의 75%밖에 징수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부족한 국민의 납세의식’ 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10년간 인도네시아 내 세금 징수율이 목표치를 넘은 것은 2004년과 2008년 단 두 번이다. 정부는 세금징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세무직원을 늘리고 세무 총국장을 공모체로 선출하는 등, 인사 투명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과가 저조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납세번호 기재 의무화 정책 역시, 이전에 시행됐으나 제대로 된 성과를 얻지 못했던 정책들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더불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일련의 정책들이 거래 과정을 오히려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든다면, 신정부가 표방하는 경제 대국으로의 발전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타나고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1억 루피아 이상 거래 시 납세번호 기재 의무화 정책이 과연 인도네시아 정부가 경제 발전과 세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동물을 통해서 배우는 생존법

서 미 숙 / 수필가, 시인  
gaeunsuh@hanmail.net

**또** 다시 새로운 한해의 시작인 2015년, 양띠 해인 을미년의 새해가 밝았다.

양의해가 상징하는 평화의 태양이 이곳 인도네시아 한인들의 삶에도 힘껏 솟아올랐다. 양은 동물 중에서도 매우 온순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만물의 평화를 가져오는 동물이라고 한다. 양이 상징하는 평온함처럼 우리의 삶도 늘 기쁘고 평화롭다면 내 가정과 더 나아가 내가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가 평화로울 것이다.

평온함은 모든 인간사의 염원이기에 그 시작은 모두가 내 자신의 삶에서 비롯됨을 일깨운다. 다른 동물도 그렇겠지만 특히나 양은 사람에게서는 매우 유익한 동물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죽어서는 양털

로 인간에게 따뜻함을 선물하고 생활에 꼭 필요한 용도로 그 쓰임성이 많다. 그보다도 으뜸인 것은 아마도 양은 온순함의 상징이기에 인간사회에 안정된 정서와 부드러운 감성에 교훈을 주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어디 양뿐이라, 어쩌면 다양한 동물들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조명해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의 원칙과 생존법을 배우게 되는 것 같다.

아주 오래전의 기억이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쯤의 일이 떠오른다.

둘째아이가 유난히 동물을 좋아해서 우리 집은 작은 동물원을 연상케 할 만큼 예쁜 동물들이 많았

다. 토끼, 병아리, 햄스터등이 함께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늘 우리 집에 흥미로운 발견과 웃음거리를 선사했다. 아이들이 마치 사람을 대하듯 토끼나 햄스터등과 일상을 소통하는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했다.

어느 날 둘째아이의 초등학교선생님과 면담에서 아이는 학교에서도 늘 동물들을 걱정하고 동물들을 보살피러 집에 빨리 가야한다고 귀가 길을 서둘렀다고 한다. 빨리 집에 가서 나를 기다리는 녀석들과 친구가 되어주어야 한다며 애기하고 노래도 불러주어야 한다고 했단다. “그런데 말이에요, 선생님! 그렇게 내가 사랑을 주니 신기하게도 동물들은 밥도 잘 먹고 더 씩씩하게 커가는 거 있지요.” 라고 말했다던 아이를 선생님은 지금도 즐거운 이야기거리로 기억하고 있었다. 피부리치 않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동물들의 일상은 그 또래 아이의 정서와 감성에 크게 기여를 한 것 같다.

나 또한 동물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관찰하며 사람이 살아가는 그 무엇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 시절의 어느 날인가, 아이는 이웃집에 예쁜 다람쥐가 있다고 구경을 가자고 해서 따라 나섰다. 자그마한 통 안에서 두 마리의 예쁜 다람쥐가 부지런히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뽀얀 앞 발가락으로 감자와 당근을 먹고 있는 모습이 아기 손처럼 부드럽고 앙증맞도록 귀여웠다.

두 놈이 번갈아가며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걸 보고 있자니 아이는 궁금했는지 다람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다람쥐야! 그 쳇바퀴 암만 돌려도 다시 제자리인데 왜 그렇게 열심히 돌리니? 그러더니 아이는 다람쥐의 오물거리는 입모양을 보더니 아하!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궁금해서 물었다. 다람쥐가 뭐라고 하든? 그랬더니 아이는, 천연덕스럽게 대답한다.” 엄마, 그걸 몰라서 물어요?

엄마는, 참... 다람쥐가 그랬어요. 우리는 원래 달리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우리 다람쥐 집안이 작

아서 달릴 곳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기만 하고 운동도 안하면 살이 찌서 토끼처럼 되거든요. “나는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아이의 대답 또한 장난꾸러기 녀석답게 재치가 있었다.

나도 다람쥐한테 물어 보았다.

“그런데 너희들, 다람쥐야! 부지런히 지치지 않고 노는데 노는 것이 재미있니? 그런데 다람쥐는 대답했다. “뭐 재미있어서 그러나요, 다 사노라고 그러는 것이지요.” 옆에 있던 다른 다람쥐도 거든다. “아, 우리가 하루 종일 먹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먹이를 주겠어요? 우리가 쳇바퀴도 돌리고, 뛰어 다니고 바쁘게 노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우리를 길러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는 그렇게 혼자 일문일답을 하면서 싱겁게 웃어 보았다.

그때의 다람쥐와 또 아이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열심히 먹이를 챙겨먹던 우리 집 동물들의 기억이 떠오르며 갑자기 사람 사는 것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단지 사람은 생각하고 또 기억하며 그 사고를 정리할 수 있는 탁월한 기능이 다르겠지만 말이다. 그렇지만 사람답게 생활하고 열심히 일해야 먹을 것이 있고, 또 일하고 뛰어 다니고, 또 휴식하며 노는 것은 모두가 삶, 그 자체라는 것이다.



거부할 수 없는 그 삶의 흐름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양과, 또 바쁘게 사는 다람쥐며 동물들은 이미 그 이치를 터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엉뚱하고도 생똥맞은 의문을 던져본다. 그래서 사람들은 곧잘 무미건조한 삶을 빗대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인생이라고 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다람쥐나 동물들은 지루하고 무의미한 삶이라도 열심히 살고 있으며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나 위기감이 닥쳐도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는 것이 “삶”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렇다. 어쩌면 삶이 그렇게 거창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꿈이 그렇게 크고 거대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삶이기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그뿐일 것이다. 주변에 대한 조그마한 관심과 배려가, 또 양처럼 서로를 대하는 순하고 다정한 마음이 우리 사회를 더욱 밝고 빛내며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

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또 다시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리라. 2015년, 청양 띠의 해가 상징하는 푸름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게 진취적이면서 적극적인 양의 모습을 배워보자.

양은 무리지어 생활하기에 공동체 생활에서도 둥글둥글한 성격으로 잘 융화 된다고 한다.

양은 개인의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자신을 더 드러내기 보다는 묵묵히 맡은 일을 해내며 상대방에 대해 온순한 배려를 더 좋아한다고 한다. 양은 무리를 지어 살면서 하루하루 평화롭게 살아가는 동물이다. 무리를 지어 살기에 자신만의 활동력도 적당히 있어야 하는 편이므로 사회성도 뛰어나고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잘 융합하는 동물 또한 바로 양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양띠해인 2015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모두모두 평온하고 좋은 일만 가득 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본다.





# 유성우 (流星雨)

별은 달을 먹고 자란다

머다가 배부르면  
눈썹 달 고프머리 걸터앉아  
달보고 웅얼이하리며 재롱부린다

등이 휘도록 앞가슴 내어주고  
허기 채워  
툇닥, 툇닥  
여문 별 하나씩 은하수 난간에  
또박또박 걸어놓고  
귀를 몰아 서둘러 떠난다

깜깜한 밤  
별은 달 찾아 바닷속으로 쏟아지고,  
달은  
젖은 별 부르다  
부르다,  
시퍼렇게 멍든 속살 드러내고  
새벽 바닷가에 철뚜덕 앉아있다

최장오



약력

제15회 재외동포문학상 시 부문 수상  
제16회 재외동포문학상 시 부문 수상  
현.한-인니 문인협회 회원.



**혁명 영웅 YANI 대장 박물관**  
**SASMITALOKA PAHLAWAN REVOLUSI**  
**JENDERAL TNI ANUMERTA ACHMAD YANI**

사공 경(한\*인니문화연구원장/한국문인협회인도네시아지부장)



Jend. Achmad Yani

**“나는 왜 군인이 되었는가, 나는 애국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왜 애국자인가, 나는 내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Yani 장군이 즐겨 사용하던 말이며 집무실 액자에 친필로 그렇게 적혀 있다.

아흐맛 야니(ACHMAD Yani) 장군은 1922년 중부 자바에서 태어나 네덜란드 식민 시절에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았다. 그는 일본 통치기에 청년 조직 PETA(Pembala Tanah Air)에 가입해 장교훈련을 받았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전쟁에 참가했다. 또 이리안자야를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1963년 수카르노는 말레이시아의 영국 식민지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의 미완의 혁명을 위협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야니 장군을 말레이시아와의 무장 투쟁에,

또 종교적 혁명에도 참가하도록 했다. 그는 빠르게 진급했고, 1962년 6월 군 최고 장성으로 임명되었다.

1965년 10월 1일은 7명의 혁명 영웅을 잃어버린, 국가적으로 슬픈 날이다. 인도네시아 국가 이념인 뽀짜실라(PANCASILA) 정신을 잘 고수했던 그들의 죽음이라 이 날을 ‘뽀짜실라 데이’라고 부른다. 6명은 장군이었고 한명은 장군의 부관이었다. 삼성 장군 아흐맛 야니(Achmad Yani)도 이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서거하고 나서 별 네 개로 진급한다.

그는 금요일(10월1일) 새벽 4시 30분, 집에 처

들어 온 공산군에 의해 피살되고, 시체는 끌어내어져 Lubang Buaya으로 옮겨졌다. 10월 4일 희생된 다른 군인들과 칼리바따 (Kalibata) 영웅 묘지에 묻힌다.

1930년-1940년대 지어진 이곳은 처음에는 네덜란드의 사립 항공사 관계자의 자택이었다. 1950년대에는 군사 주택 사무소에 의해 관리되었다. 이 박물관은 장군 Yani가 거주하던 집이며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야니대장의 애국심을 기리기 위해 수하르토의 지시로 장군이 돌아가신지 1년째 되는 날, 즉 1966년 10월1일에 박물관으로 개관되었다. 현재 인도네시아 육군 역사 관리 기관이 운영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역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왜 공산당들은 야니 장군을 지목했는지, 그가 정말 영국과 미국의 모종의 작전에 개입했는지, 타락한 집단의 일인자였는지, 장군이 천명한 대로 그러한 음모와 무관한지는 잠시 접어두고 싶다. 보이는 그대로의 그는, 따뜻한 아버지였으며, 훌륭한 군인이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다.

거사 주도자들은 주로 수카르노 대통령 경호실 소속 인물들이었다. 이 사건은 수카르노를 실각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를 진압한 수하르토가 이 때부터 실제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후 반제국주의와 반식민주의 그리고 혁명을 강조 하였던 수카르노 시대와는 달리 9.30 사태이후 새로운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 개발과 반공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10월 1일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나 9월 30일 밤에 작전을 개시했으므로 9.30사태라고 한다.)

이 곳에는 방문자 대기실, 보좌관 집무실, 휴식을 취했던 코너가 잘 보존되어 있고 응접실 벽에 걸린 큰 그림에 그 때의 처절하고 급박했던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사건을 예견한 듯 장군의 방에는 사망하기 이틀 전 번개를 맞은 자국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부엌에는 그가 총에 맞아 쓰러진 자리가 표시되어 있으며, 다큐멘터리 사진으로도 전시되어 있다. 그

의 삶과 죽음에 관한 사진들 외에는 그때 당시의 집안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존되어 있다.

첫 번째 방은 대기실이다. 방 안에는 다양한 종교와 권위를 상징하는, 정부 부처에서 받은 기념품과 동료들이 선물로 준 예술품, 무기, 배지, 메달, 코끼리 상아 등 많은 물품들이 보관되어 있다.

두 번째 방은 보좌관이 근무했던 방으로 사무에 필요한 용품과 서적이 전시되어 있다. 이 방에서는 몇 개의 유리 상자와 그의 장교 시절의 사진과 장교를 상징하는 수집품이 있다. 이를 보면 그의 영웅의식과 함께 뛰어난 군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傳記도 있고 군대와 일반지식에 관한 모음집도 있다. 주치의에게서 선물 받은 수마트라 호랑이가 박제로 전시되어 있다.

세 번째 방은 장군이 휴식을 취했던 방이다. 휴식을 취하는 동안 그는 정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곤 했다. 이 방에는 골프채가 보관되어 있는데 골프는 그가 좋아하는 스포츠 중의 하나였다. 또 Yani 장군 동상 모형이 있는데 수마트라에 세워져 있다고 한다. 물론 그 당시에 많은 일을 한 장군이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동상으로 만들 수 없다하여 수카르노 대통령이 반대를 했으나 야니 장군이 죽은 후에 세워졌다.

네 번째 방은 특별실이며 작업실이다. 이곳에서 부관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곤 했다. 벽에는 장군이 사건 당일 공산당과 격투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





다. 이 그림을 “피의 새벽” 이라고 한다. 1965년 10월 1일, 공산당 G30S/PKI 150명이 집을 포위하고 차량을 막았으며, 4명은 집으로 들어와 경비원과 일하는 사람을 협박해서 부엌문에서 장군을 불렀다. 그 당시 잠에서 깬 7살인 막내아들 에디는 그들을 보고 침실로 가서 아빠를 깨웠다. 그가 나갔을 때 G30S/PKI 소속 무키잔 중위와 상사는 “시간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며 빨리 동행할 것을 재촉했고, 장군은 “이른 아침부터 웬 소란이나 세수라도 하고 가자” 라고 말했으나 그들은 “장군님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세수도 안됩니다. 지금 당장요” 했다. “피의 새벽” 은 야니 장군이 화가 나서 주먹을 날려 중위를 때려눕히며 그들과 격투하는 장면을 1967년 BP. Omar 화가가 그린 것이다.

다섯 번째 방은 식당과 바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다.

식당은 그의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장소였다. 이 방에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다양한 물건들을 찾을 수 있다. 춤추는 사람들이 새겨져 있는 카펫을 매형 Mr. Sumadi와 누나가 Yani와 Yuyu Rulia 가 1944년 결혼할 때 결혼 선물로 준 것인데, 그가 무척 아끼던 것이다. 독립전쟁 때 그는 이 카펫을 담요로 쓰곤 했다. 또 해외에서 들어온 수집품과 장식품과 사진들. 같이 희생된 혁명 영웅들의 사진. 부인이 좋아했던 유채물감으로 그려진

유리컵 받침이 잘 정돈되어 있다. “yon 530 Para Garuda III Congo” 라고 새겨져 있는 아프리카 코끼리 상아가 있는데 이는 콩고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군인들이 콩고에서 6개월간 훈련을 받고 임무를 완전하게 수행했을 때 선물로 준 것이다.

빌딩 전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A. Yani 장군이 죽어서 쓰러질 때의 위치는 Sasmitaloka 건물의 성스러운 장소로 인정되고 있다. 그는 화가 나서 공산군을 때리고 부엌문을 닫고 들어가는 순간 7발의 총을 맞고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실에서 죽어갔다. 더 안쪽으로 가면 야니의 가족사진으로 꾸며 있는 식당이 보인다. 공산단원들이 총을 맞아 몸에서 피가 떨어지는 야니를 부엌으로 끌어갔다. 게다가 총알 2개가 야니 침실 밖에 있는 그림을 뚫었다. 이 날 장군의 부인 Rulia는 자신의 생일(10월1일)을 정갈하게 맞이하기 혼자 조용히 기도하려고 수카르노 대통령에게서 선물 받은 집으로 가고 없었다. 이렇게 그는 1965년 10월 1일 새벽에 G30S/PKI의 무리들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이를 기억하기 위해 바닥에 그가 죽은 곳을 표시해 놓았다. 벽에는 그때의 총탄 자국을 아직도 볼 수 있고, 유리문도 충격에 의해 뚫려 있다. 장군의 시신은 질질 끌려 나가 트럭에 실렸다. G30S/PKI의 무리들은 사건 종결 후 20년 후에 사형이 집행된다.

Bar에는 국내외에서 생산된 다양한 종류의 술이 보관되어 있다.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손님에게 대접하는 용도였고, 야니 장군 혼자서는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

여섯 번째 방은 장군의 침실이다. 가정적이고 자상한 아버지였던 그는 크지 않은 침실에서 자식들은 침대에서 자게하고, 자신은 항상 바닥에서 잠을 잤다고 한다. 박제화 된 영웅 군인의 이미지가 아니라 따뜻한 인간으로서의 숨결이 느껴진다. 침대는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상태가 좋다. 침대 위에 8명의 자녀들과 찍은 흑백사진이 있는데, 사건 당시 장남이 18살이었다고 한다. 침실 오른쪽 윗부분 벽에 크게 금이 갔는데 야니 장군이 피살되기 며칠 전 번개가 부딪쳐 일어난 일이었다. 그때 그의 부인은 불길한 예감에 아주 불안해했다고 한다. 이방에는 또한 많은 무기와 G30S/PKI (공산군부대)에서 쓰던 탄알들이 있다.

공산군들이 Yani 장군을 사살할 때 사용했던 총 Thomson 총은 체코에서 만들었다. 11323번, 12839번의 총은 S. Parman과 작은 영웅들, AdeIrma Suryani을 쏠때 사용했던 총이다. 라이트 머신 건이 있는데 이는 Yani의 동지인 혁명 영웅들을 Lubang Buaya에서 사살할 때 사용했던 것이다.

그가 즐겨 입던 셔츠도 전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인이 장군에게 생일 선물로 준 잊지 못할 선물로 그가 죽었을 때 흘린 피를 닦았던 옷이다. 1965년 10월 그의 마지막 급여인 12만루피아(당시 가격)는 아직까지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케이스에 잘 보관되어 있다. 또한 몇 개의 반지, 유리 컵, 부대 스티커, 군복 등 오래된 것들도 잘 보관되어 있다.

일곱, 여덟 번째 방은 장군의 아이들 방인데, 나무 침대와 옛날 60년대 우리들이 가지고 놀았던 미제 인형 같은 것들도 있었고, 여행 기념품, 그리고 장군이 The Great kapitan Patimura로 진급했을 때 받은 전통 의복, 그가 죽기 하루 전 판중쁘리옥(Tanjung Periok)에서 통신사 기자 누르딘(Nurdin)에게 준 Lucky Strike라는 담배도 보

관되어 있다. 장군의 셔츠, 아이들의 일기장도 보관 상태가 좋다.

아홉 번째 방은 또 다른 거실로 사용. 지금은 문서 보관실로 사용되고 있다. 사건 당시 군인들이 루방 부아야 (Lubang Buaya)로 끌려가는 장면, 우물에서 시신을 끌어 올리는 장면, 영웅묘지 칼리바타로 가는 장면 등이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다.

열 번째 방은 혁명 영웅들의 방이다. 장군과 9.30 사태 당시 같이 희생된 장군들과 관련된 수집품을 보관해 두었다. 소에프라프토 장군은 직접 문을 열어주었고, 그는 전통 복장을 입은 채로 끌려갔다. 시간을 개의치 않는 대통령의 호출에 이미 익숙해진 파르만 참모 총장은 곧 옷을 갈아입고 따라 나섰다. 판자이만 장군은 용감히 맞섰으나 그 자리에서 총살당했다. 하르조노 역시 총살당했다. 독립 영웅이었고 국방 장관인 나스디온 장군은 야니 일과는 아니었다. 그는 부인의 등을 타고 옆집 이라크 대사관으로 피신하다가 발이 빠졌다. 화는 면했으나 대신 그의 부인과 어린 딸이 죽었다. 그가 당시에 사용하던 지팡이와 침대가 전시되어 있고, 어린 딸 아테이르마의 사진이 걸려있다. 사건 직후 군부가 공산탕 소탕하는 일로 인도네시아 전역에 폭력과 사살이 난무했다. 이 곳의 많은 전시품들은 영어와 인도네시아어로 잘 안내되어 있고 가족들이 사용하던 차(Made in America)도 전시되어 있다.

기념 우물 옆에 자리한 커다란 YANI의 동상은 집을 감싸고 있는 산뜻한 정원에서 있다. 동상 아래 새겨진 글귀는 국민들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

**"그들은 천년을 살 것이다."**

Jl. Lembang No. D-58, Menteng, Jakarta Pusat (021) 31901623 개관 화요일-일요일 08:00~16:00입장료: 무료 (미리 전화를 하고 가는 것이 좋다.)



## 분쟁 해결(2)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mailto: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 5.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협상이다. 그러나 상황과 상대를 피차에 잘 아는 당사자 간에 직접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으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방법이다.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나름대로 노력을 했으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이유, 즉,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귀책 사유가 상대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 협상으로 분쟁 해결은 쉽지가 않다.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면 Mediator 혹은 대리인을 내세워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ediator는 인도네시아 제도상으로는 존재하고 있으나 활용은 아주 미미하며, 통상은 전문가 대리인(변호사)을 내세워서 협상을 하고 있다. 전문가끼리 만나서 검토하면 사안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법리적인 답을 찾아 내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분쟁 당사자들의 득실 때문에 최종 합의 결정은 당연히 분쟁 당사자가 내린다. 대리인의 의견을

의뢰인이 수용하는 경우에는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협상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면 당사자가 종전의 주장에서 조금 양보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 6.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 6.1. 변호사 선임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면 확정판결문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장기 전략과 인내심이 필요하며, 민사소송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변호사와 상대측의 재산 소유 여부이다. 한국의 변호사들은 한국의 제도 덕택에 변호사의 자질이 평준화되어 있으나 인도네시아의 변호사들은 그렇지 못하고 천차만별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일반 로펌에서 2년 간 실습을 마치면,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받고 실무에 배치되나, 법률 문제로 찾아온 손님에게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상담을 해주려면 변

호사 자격증 취득 후 최소 5년 정도의 실무 경력은 있어야 하며, 법률문제를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려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변호사라야 하는데, 법률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승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쉽게 자연스럽게 표시한다. 이는 사건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보다는 변호사 자신의 입장에서 보고 수임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항을 쉽게 말하는 변호사들이 많다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사건위임계약서를 체결하고 나면, 소송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송 전망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변호사가 많지 않은 현지 실정 때문에 의뢰인과 변호인 간에 신뢰를 쌓는 것이 쉽지 않으며, 특히, 외국인 의뢰인들이 많이 답답해 하는 현지 현실이다.

인도네시아 변호사의 신뢰도를 말해주는 사건이 있다. 몇년 전에 필자가 승용차를 사려고 금융회사에 리스를 신청했다가 거부를 당한 적이 있다. 리스 거부 사유가 신청인의 직업이 변호사라는 이유였다. 변호사, 영화배우 및 군인에게는 리스를 해주지 않는다는 금융회사의 답변을 듣고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었다. 인도네시아 변호사의 초상화이다. 법률문제를 법리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법리적으로 유리한 사항과 불리한 사항도 설명해주고, 분쟁을 해결하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방법도 설명해주고, 의뢰인이 현실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이다. Retaining Fee는 변호사협회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자유시장이어서 로펌 간 차이가 많다.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A 클래스 로펌의 수임료는 사안에 따라 칠만불-십만불 선이며, 외곽에 있는 로펌은 훨씬 저렴하다. 민사소송은 변호사비 이외에 승소를 전제한 성공급이 있다.

### 6.2. 상대의 재산 유무 조사

소송은 승소하기 위해서이다. 승소 후 패소한 측이 승소한 측에게 확정판결문대로 손해를 배상해주면 다행이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고, 사전에 가압류해 놓은 패소한 측의 재산을 매각하여 손해를 변제받는 강제집행 방법을 쓰거나, 패소한 측의 재산을 찾아내서, 법원에 압류허가

를 받아, 강제 집행하는 방법으로 손해를 변제받고 있다. 따라서 소송 청구 전에 상대측의 재산을 조사하여, 법원의 가압류 허가를 받아 가압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승소했을찌라도 패소한 측이 재산이 없으면 낭패이다. 소송전에 상대측의 재산 유무 조사는 필수이다. 상대측이 사업활동을 하고 있으면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라 할 수 있다.

### 6.3. 민사소송 소요 기간

대법원의 소송처리 기간 지침에, 지방법원은 지방법원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고, 고등법원은 고등법원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으며, 대법원에 대해서는 처리 시한 지침이 없으나 통상 6개월-9개월 정도 걸리고 있다. 지방법원에서 본소만 심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6개월 이내에 판결이 내려지나 반소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 시간이 더 소요된다.

## 7. 형사고소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방법

형사의 본질은 분쟁해결 방법이 아니고, 범죄자 처벌을 통한 사회질서 유지목적이거나, 비즈니스 분쟁해결을 위한 압박수단으로 민사분쟁 상대 당사자를 형사고발해서 분쟁을 해결해보겠다는 목적



으로 형사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분쟁해결 목적 형사고소는 대부분 일반사기 혐의(형법 제378조) 및 횡령 혐의(형법 제372조)이다.

### 7.1. 형사 고소처

경찰본부(Mabes Polri), 지방경찰청(Polda), 경찰서(Polres) 혹은 Polsek(경찰지서)에 고소할 수 있으며, 어느 경찰 기관에 고소가 적절하느냐는 사안에 따라 의견이 다소 다를 수 있지만 경제 범죄는 지방경찰청(Polda)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법을 아는 수사관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 7.2. 수사권

연행, 체포, 구속, 수색, 압류하는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

### 7.3. 구속

징역 최장 5년 이상에 해당되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거나,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피의자는 구속할 수 있다. 구속 여부 판단은 수사관이 하며, 수감 장소는 유치장이며, 거주지 도시(도시 구속)로 주거를 제한할 수도 있다.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이며, 연장을 통해 최장 60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 외국인 피고소자는 구속하지 않으면 하시라도 출국해버릴 수 있다는 이유로 내국인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7.4. 수사 절차

형사고소가 접수되면 형사고소 확인서(Laporan Polisi)를 고소자에게 교부하고, 분석실에서 분석 후, 해당 수사과에 배정이 된다. 지방경찰청장-수사국장-부국장-수사팀장-수사반장-수사관이 수사 라인이며, 고소자를 먼저 조사하며, 고소자가 진술하는 내용중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증인 및 참고인을 조사 후, 마지막으로 피고소자를 조사한다. 고소자, 증인, 참고인 및 피고소자의 진술 내용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대질 신문을 하며, 일단계

조사가 완료되면 고소자와 피고소자를 참석시킨 사건심사회의(Gelar Perkara)를 개최하여 수사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 7. 피의자/피고의 권리

#### 7.5. 피고소자의 권리

피고소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통역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변호인과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의 통역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7.6. 검찰에 송치

수사가 완료되면 경찰은 수사 파일과 함께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한다.

#### 7.7. 검찰의 권한

검찰은 적용할 형법 조항을 결정하며, 구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법정에서 공소장을 낭독하며, 피고의 유죄를 입증하며, 구형하며, 판결문을 집행한다.

7.8. 피고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확정판결문은 민사재판에 증거능력이 있는 결정적인 증거물로 이용된다.

## 8. 파산선고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상업법원에서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 8.1. 파산선고 청구가 가능한 채권

금전대여, 물품 혹은 서비스 매매, 건설 계약, 임대차, Lease, Factoring 등 모든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및 인건비이며, 외국에서 발생한 채권도 파산선고 청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발생한 채무를 갚지 않은 채무자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채권자가 인도네시아의 상업법원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를 청구하여 채무자를 파산시킬 수 있다.

### 8.2. 파산선고 피청구 가능 채무자

8.2.1.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파산선고 청구를 불허한다. 그러나 정부를 제외한 모든 사단법인, 재단법인,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혹은 공공단체에 대하여 파산선고 청구가 가능하며,

8.2.2.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여하한 채무자에 대하여서도 파산선고 청구가 가능하다. 외국 회사가 인도네시아 국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주재원, 지점 혹은 지사가 있으면 파산선고가 가능하며, 내국회사, 외국회사, 내국인, 외국인 문제가 되지 않으며 상업법원을 통하여 채무자를 파산시키고 채무자의 국내외 모든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 회수 가능하며,

8.2.3. 채무자가 인도네시아 영토를 떠났을지라도 파산 선고 청구가 가능하다. 채무자인 회사를 먼저 파산시킨 후, 물품대 혹은 인건비를 갚지 않고 도주한 사주와 경영진에 대하여 법적으로 압박이 가능하다,

### 8.3. 파산선고 청구 자격자

8.3.1. 채권자

8.3.2. 검찰

8.3.3. 금융감독원

8.3.4. 채무자 자신

### 8.4. 파산선고 조건

채권자의 인원이 2명 이상이며, 2개의 채권 중 최소 1개의 채권이 만기되었으면 파산선고 조건을 충족시킨다. 채권자가 1명인 경우에는 채권 일부를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파산선고 조건을 구비할 수 있다.

### 8.5. 파산선고의 법적인 효력

8.5.1. 파산이 선고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압류 상태가 된다.

8.5.2. 파산이 선고된 채무자는 치산권을 상실하며, 채무자의 치산권을 관재인이 행사한다.

8.5.3. 파산이 선고된 회사의 주주 및 이사회의 치산권을 상실하며, 주주 및 이사회의 치산권을 관재인이 행사한다.

8.5.4. 상업법원의 파산선고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소하더라도 상업법원의 파산선고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8.5.5. 파산선고 판결문을 전국지 일간지 2곳에 공시하며, 채무자의 주거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전체 재산 보고의무가 있으며, 채권자의 직접 참석의무가 있으며, 비협조 시 구금이 가능하다.

(다음 호에 계속)

# 2015년도 제 40회

# 한국어능력시험

세계 속 한국어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어 학습방향을 제시하고 국내로의 유학과 취업 등에 필요한 한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평가하는 2015년도(제40회) 한국어능력시험(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의 인도네시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험일시

- 2015년 4월 15일 (일)
  - TOPIK I (초급) 09:30~11:10 (100분)
  - TOPIK II (중·고급) 12:30~16:00 (180분)

#### 시험장소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고등관

#### 응시대상

-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 시험구분

시험 수준	TOPIK I		TOPIK II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시험 등급						
등급 결정	시험 성적에 따라 응시한 시험 수준 내에서 평가 등급 결정					

- ※ 한국어 능력을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
- ※ 12년 전과정 학생은 모든 대학에 필수 제출

####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5년 1월 27일 (월) - 2015년 2월 9일 (금) 09:00~15:30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Jl. Bina Marga No. 24 Kel. Ceger Jakarta Timur  
 접수 시 반드시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3×4) 3매 준비
- 접수장소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행정실(담당 : 정재선 | Tel. 844-4958)

#### 응시수수료

- TOPIK I | Rp.150,000
- TOPIK II | Rp.250,000

#### 시험시간

구분	교시	영역	인도네시아			시험 시간(분)
			입실 시간	시작	종료	
TOPIK I	1교시	듣기/읽기	09:10	09:30	11:10	100
	2교시	듣기/쓰기	12:10	12:30	14:20	110
TOPIK II	1교시	듣기/읽기	14:40	14:50	16:00	70
	2교시	읽기				

#### 합격자 발표 예정

- 2015년 6월 16일(화) 예정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www.topik.go.kr)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성적증명서도 원본이므로 제출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응시자 유의사항

- 수험표는 시험 당일 배부합니다. 수험표는 반드시 개인 보관해야 합니다.
- 시험일에 반드시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이 없는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답안 작성용 사인펜은 당일 배부합니다.
- 이전 시험과 변동사항이 있으므로 숙지하고 지원하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행정실 및 고등부 교무실  
 844-4958 정재선(내선153)
- 자세한 내용은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홈페이지(http://jiks.com)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주관

- 국립국제교육원(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 모네의 <인상, 해돋이>

1872년. 모네는 자신이 자라난 르아브르의 항구에서 맞이한 일출을 즉흥적으로 그렸다.

“풍경은 인상이다. 그리고 즉흥적이다” 라는 그의 말처럼, 모네는 붉은 색과 푸른 색 두 가지 색조의 거친 터치로 그 분위기를 그려냈다. 가까이 볼 때는 형태가 잡히지 않지만, 멀리서 전체를 볼 때는 그림 전체가 갖고 있는 빛의 느낌, 수면의 움직임, 바람, 아침 해가 대기에 퍼지는 순간의 감동이 전해진다.



작품 : 인상, 해돋이(Impression, Sunrise),  
1872, oil on canvas, 48 x 63 cm

작가 :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

### 19세기말 미술, 음악, 영화에서 한 시대를 풍미한 인상주의

“인상주의” 라는 용어는 모네의 이 작품에서 비롯되었다. 별 생각없이 붙인 그림의 제목이 미술 전문 기자의 야유 섞인 기사로 인해 정식 명칭이 된 것이다. 모네는 평생을 인상주의 화풍을 고수하며, 순간적인 빛에 따라 달라지는 색의 변화를 화폭에 옮기는 작업을 했다. 색채는 빛이 있기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고, 빛이 변함에 따라 색도 다르게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시각표현에 있어서의 지동설 썸 되는 이야기가 되겠다.

모파상의 표현에 의하면, 모네는 순간순간 변하는 빛과 색의 조화를 캔버스 위에 포착하는 포수였다. 따라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루앙성당>, <건초 더미>, <수련>연작 등을 제작하게 된다.

모네는 평생 일관된 작업을 하면서 인상파 기법의 한 전형을 이룬다. 빛과 색을 가장 중시한 만큼 그는 풍경과의 신비적 교감을 보여준다. 평생을 순간적인 빛의 변화를 쫓는 포수처럼 작업을 한 탓인지 말년에는 백내장으로 인해 시력을 거의 잃게 된다. 말년의 수련 연작을 보면 이미 추상화이다. 그래서 모네를 인상파를 완성하고 추상화를 연 화가라고도 한다.

하루 한 번 어김없이 떠오르는 해돋이를 즉흥적으로 그리면서 미술사에 획기적인 물꼬를 트고, 일관된 작업으로 하나의 전형을 이룬 화가. 장수하면서 평생 그림을 그리고, 화가로서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도 누렸던 모네는 참으로 행복하게 살다 간 화가임에 틀림없다.

<인상, 해돋이>를 과학적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모네가 1872년 11월 13일 오전 7시 35분의 순간을 그렸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언제가 되었던 해돋이 인상을 즉흥적으로 표현한 이 작품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시간의 엄숙함이 느껴진다. 해가 떠오를 때 가장 색이 강렬하다고 하는데, 그 순간이 변화시키는 긴 하루와 때로는 더 긴 역사적인 변화들을 보면 그러하듯.

#### 2015년의 새로운 해가 솟았다

올해도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시작되고, 매일 새벽 새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공평하고 희망찬 선물일 것이다.

#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허영순/OKTN (KBS WORLD)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연초가 되면 모두들 새해 계획도 세우고 신년다짐도 합니다.

책은 표지, 머리말 후 본문으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의 본문은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시는지요? 또 나머지 페이지들은 어떻게 채우실 건가요?

어제가 2015년이라는 책의 표지 또는 머리말이었다면, 오늘은 본문이 시작하는 페이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첫 빈 페이지를 어떻게 채우실 건가요?

2015년 한 해는 여러분이 오늘 마음속으로 그린 행복이 꼭 실현되기를 기도합니다.

# Ayah datang ke kantorku...

...dan menyebabkan **kericuhan**

아버지가 회사에 오셔서 난동을 부리셨어  
강심이 문상무와 밤새 함께 있었던 사실을 안 아버지가 회사까지와 난동을 부리자, 이에 놀란 강심이 부랴 부랴 달려와 아버지에게 싫은 소리를 합니다.

다툼이나 싸움, 한국어로도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언쟁하다 논쟁하다, 다투다, 치고 받고 몸싸움을 하다. 등등 인도네시아어의 다툼을 나타내는 여러가지 단어를 예문을 들어 나누어 봤습니다.

1. **Kericuhan** = 어근 RICUH+ 접두사, 접미사 (Ke-an)가 붙어 형용사에서 명사화 됨)

Ricuh는 . Ribut, cekcok; Campur aduk tidak keruan, kacau; 소란스러운, 소동이 난, 혼란스러운 이라는 뜻을 갖은 단어들과 함께 사용된다.

Kericuhan = 다수의 분쟁이나 다툼으로 마을 또는 도로에 있는 공용시설, 기물을 망가뜨리거나 훼손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소란을 뜻한다. Kekacauan, Kerusakan kecil (혼란, 작은 소동)

- Kericuhan dipicu karena tidak adanya rasa saling menghormati di antara ke dua pendukung partai.

양정당의 후원자들은 상호 배려심 없이 난동을 부렸다.

2. **Kelahi** =어근 그대로가 명사형이며 (개인간의)언쟁 또는 몇몇 사람이나 그룹간의 폭행을 동반한 분쟁을 뜻한다.

- Ibu guru memanggil orangtua kedua murid yang berkelahi karena hal sepele.ke sekolah. 선생님은 사소한 문제로 싸움을 한 두 학생의 부모님을 학교로 호출했다.

3. **Pertengkaran** = (어근TENGGAR의 형용사에(Per-an)이 붙어서 명사화 함) Pertengkaran는 Percekcokan, perdebatan(싸우다, 이견다툼이 일다) 와 같이 언쟁을 뜻하며 언쟁중에 서로 욕설이 오거나 몸싸움은 일지 않았을 경우의 싸움을 뜻한다.

- Tips meredam pertengkaran dengan pacar atau kekasih.

에인 또는 연인과의 다툼을 잠재우는 방법(팁)

\*) -Redam은 없애다, 잠재우다, 가라 앉히다 라는 뜻으로 화재 진압 시 또는 무언가 발생하여 조절이 안되는 상황을 가라 앉힐 때, 진정 시킬 때 주로 사용됩니다 -Rendam 과 같이 물이 담구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Ia meredamkan baju yang kotor ke air sabun. 그는 더러운 옷을 세제(비눗)물에 담궜다.

4. **Perselisihan** = (차이, 간격을 나타내는 어근SELISIH에 (Per-an) 이붙어 명사화 됨)

Selisih 차이, 다툼, 이견 등을 뜻하는 단어로 예문은 다음과 같다.

- Perselisihan di antara mereka terjadi karena salah paham.

오해로 인해 그들간의 이견이 생겼다 (분쟁)

5. **Keributan** = (어근 RIBUT에 (Ke-an)이 붙어 명사화 됨)

분주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 복잡한, 혼동스러운 상태를 나타 내며 Ribut 분주한, 일이 많음, 화를 냄, 언쟁 등을 뜻하는 단어로 소란 법석, 혼란, 다툼 Keributan = kegemparan; kerusakan; kekacauan 과 유의하다.

- Budi dan Anduk bertengkar sehingga membuat keributan di lingkungan rumahnya. 부디와 안дук씨는 주택가에서 다투어 소란을 일으켰다.

# 화제의 도서를 소개합니다!!



## 혼자의 발견

곽정은 저 | 달

그와 나는 그린라이트일까 아닐까. 모든 연애가 그 작은 상자처럼 명료한 초록색 불빛을 뿜어낸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러하듯 사랑 또한 아름답지만은 않다. 몽근하고 저릿하고 아리송한 사랑. 이토록 복잡미묘한 사랑과 사랑하는 사람들에 관하여 수많은 많은 명언들을 쏟아낸 칼럼니스트 곽정은. 그녀가 패션지에서 10년간 일하며 만난 1,000여 명의 사람들에 대한 에세이 『내 사람이다』를 펴낸 지 3년 만에 새로운 책을 출간한다.



## 우주비행사의 지구생활 안내서

크리스 헤드필드 저/노태복 역 | 더퀘스트(길벗)

20년간의 우주비행사 훈련, 4천 시간에 이르는 우주 체류 기록을 남긴 전직 우주비행사이자 국제우주정거장(ISS) 사령관 크리스 헤드필드. 그가 오래도록 지구와 우주를 오가며 얻은 성취와 생존의 비결은 '최악에 대비하고, 그 과정을 매순간 즐기는 것'이다. 이 책은 아홉 살에 품은 '우주비행사'라는 불가능한 꿈을 가능으로 만들어가는 도전의 여정을 그리는 동시에, 우주비행사의 일상과 우주탐사 프로젝트의 실제에 대한 호기심을 채워줄 흥미진진한 이야기(우주왕복선 발사, 우주유영의 감동, 긴박감 넘치는 위기 대처 사례)들로 채워져 있다. 또한 꿈을 좇는 길에서 터득한 반직관적인 삶의 지혜도 들려준다.



##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채사장 저 | 한빛비즈

현실의 필수적인 지식을 외면한 채, TV 오락과 연예 스캔들, 상사 뒷담화에만 열을 올리는 대화는 허무하다. 어느 날 문득 자신의 부족한 지식수준을 채우기 위해 인문학 공부를 시작해야겠다고 절감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지식의 세계는 망망대해 같다. 역사는 너무나 방대해 막막하고, 경제는 골 아프고, 정치는 화딱지부터 나고, 사회나 윤리는 지리멸렬하기만 하다. 그런데도 꼭 필요한 지식인 듯해서 쉽게 포기하지는 못하겠다. 대체 어디서부터 얼마만큼 알아야 하는 걸까? 지적 대화를 위한 지식인의 기초는 어디까지인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은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전 과정을 마치 하나의 천일야화처럼 재미있는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풀어낸다.

## 선생님 사용 설명서

차승민 글/주미 그림 | 고래가숨쉬는도서관

선생님과 친해지는 60가지 행동' 등 아이들이 읽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정보를 담았다. '선생님을 사용하는 39가지 방법'은 아이들에게 상황을 주고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야기한다. 이 책은 아이들에게 좋은 태도를 갖게 하는 방법, 학교를 즐겁게 다닐 수 있는 방법,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방법, 공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 주는 책이다



## 해녀와 나

준초이 저 | 남해의봄날

대한민국 대표 광고 사진작가 준초이, 그와 해녀의 만남은 우연처럼 운명처럼 시작되었다. 제주에서 광고 촬영을 하던 2005년의 어느 날, 멀리서 들려오는 숨비소리에 이끌려 우도에 들어가 '여덟 명의 해녀' 사진을 찍었다. 한 장의 사진으로 남은 이 해녀와의 만남은 그를 강렬하게 사로잡았고, 그 후로 틈만 나면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러기를 8년, 자신이 찍었던 8명의 해녀 가운데 두 분을 제외한 여섯 해녀가 모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부리나케 섬속의 섬 우도로 떠났다.



## 김태훈의 편견

김태훈 저 | 예담

우리가 형성한 상대방에 대한 정의와 이미지는 한 번 정해지면 쉽사리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오해나 편견일지라도 그 확고한 정의를 수정할 기회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연기자나 가수, 소설가, 영화감독 등의 이미지는 더욱 그렇다. 그들에 대한 소문이나 오해는 거기에 살이 덧붙여져 더 큰 오해를 생성하게 된다. 그래서 김태훈이 그들을 만나 물어보았다. 류승완, 광도원, 표창원, 정유정, 장소영, 성석제, 신해철, 낸시 랭, 천명관, 이은결까지...자신만의 스타일을 확보한 그들을 만나 물어보았다. 그들의 진실,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이다.



# 2014년 한인회 임원찬조금 명단

1월2일현재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연도	금 액	
					USD	IDR
1	한인회 명예회장	승 은 호	PT. KORINDO GROUP	2014	20,000	
2	한인회 명예고문	김 재 유	PT. DONG SUNG	2014	5,000	
3	한인회 회장	신 기 업	PT. HANINDO EXPRESS	2014	20,000	
4	한인회 수석부회장	조 규 철	PT. DONG JUNG IND.	2014	10,000	
5	한인회 수석부회장	배 도 운	PT. DOOSAN CIPTA BUSANA	2014	10,000	
6	한인회 부회장	강 희 중	PT. SUNG TECHNOLOGY	2014	5,000	
7	한인회 부회장	김 희 년	PT. E-TRADING	2014	5,000	
8	한인회 부회장	김 영 옥	PT. GAYA INDAH KHARISMA	2014	5,000	
9	한인회 부회장	김 주 철	PT. STAR CAMTEX	2014	5,000	
10	한인회 부회장	김 준 규	PT. CIPTA ORION METAL	2014	5,000	
11	한인회 부회장	박 재 한	PT. BUSANA PRIMA GLOBAL	2014	5,000	
12	한인회 부회장	엄 정 호	PT. ING INTERNATIONAL	2014	5,000	
13	한인회 부회장	이 지 현	PT. ZIMMOAH MARINE	2014	5,000	
14	한인회 부회장	이 진 수	PT. SUNGBO JAYA	2014	5,000	
15	한인회 부회장	이 호 덕	PT. VICTOR JAYA RAYA	2014	5,000	
16	한인회 부회장	최 광 수	PT. BIG STAR	2014	5,000	
17	한인회 부회장	최 상 학	BANK WOORI	2014	5,000	
18	한인회 부회장	황 의 상	PT. INHWA INDONESIA	2014	5,000	
19	한인회 자문위원단 의장	배 상 경	PT. TEBO AGUNG INTERNATIONAL	2014	2,000	
20	한인회 자문위원	강 덕 재	PT. LEMBU SWANA PERKASA	2014	1,000	
21	한인회 자문위원	김 문 환	PT. KASINDO GLOBAL UTAMA	2014	1,000	
22	한인회 자문위원	김 병 철	PT. MISUNG INDONESIA	2014	1,000	
23	한인회 자문위원	김 석 래	PT. INACON LUHUR PERTIWI	2014	1,000	
24	한인회 자문위원	김 영 만	PT. KIPCO UTAMA ENERGY	2014	1,000	
25	한인회 자문위원	김 영 주	PT. DEWA CITRA SEJATI	2014	1,000	
26	한인회 자문위원	김 우 재	PT. KOIN BUMI	2014	1,000	
27	한인회 자문위원	박 동 희	PT. TRIKARYA ALAM	2014	1,000	
28	한인회 자문위원	박 헌 식	PT. DONGAN KREASI	2014	1,000	
29	한인회 자문위원	석 웅 치	PT. DAYUP INDONESIA	2014	1,000	
30	한인회 자문위원	송 재 선	PT. PUTRA HANKUK	2014	1,000	
31	한인회 자문위원	양 영 연	PT. BOSUNG INDONESIA	2014	1,000	
32	한인회 자문위원	이 승 민	YSM & PARTNERS	2014	1,000	
33	한인회 자문위원	이 진 호	PT. JIN YOUNG	2014	1,000	
34	한인회 자문위원	이 현 상	PT. ROYAL KORINDAH	2014	1,000	
35	한인회 자문위원	정 무 응	코린도 장학재단	2014	1,000	
36	한인회 자문위원	조 용 준	CV. TIGA BINTANG JAYA	2014	1,000	
37	한인회 자문위원	최 정 남	PT. GLOBAL FIBERINDO	2014	1,000	
38	한인회 자문위원	하 연 수	PT. SEOLIN	2014	1,000	
39	한인회 자문위원	현 상 범	PT. INAMEN JAYA	2014	1,000	
40	한인회 이사	강 주 석	PT. SERIM INDONESIA	2014	1,000	
41	한인회 이사	강 호 성	PT. ANUGRAH CIPTA MOULD SHOP	2014	1,000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연도	금 액	
					USD	IDR
42	한인회 이사	구 자 성	일요신문	2014	1,000	
43	한인회 이사	김 경 곤	PT. SUKWANG INDONESIA	2014	1,000	
44	한인회 이사	김 경 국	PT. NES	2014	1,000	
45	한인회 이사	김 광 현	PT. ASOKA	2014		12000000
46	한인회 이사	김 도 상	PT. HONGIK INDONESIA	2014	1,000	
47	한인회 이사	김 문 호	PT. DADA INDONESIA	2014	1,000	
48	한인회 이사	김 상 태	PT. SMS GROUP	2014	1,000	
49	한인회 이사	김 성 국	PT. TRISTAN RESOURCES	2014	1,000	
50	한인회 이사	김 세 형	PT. BTEXB INDONESIA	2014	1,000	
51	한인회 이사	김 수 용	PT. NOBLE INDONESIA	2014	1,000	
52	한인회 이사	김 종 현	PT. KOIN BUMI	2014	1,000	
53	한인회 이사	김 희 익	PT. EPS INDONESIA	2014	1,000	
54	한인회 이사	노 승 원	PT. SGWICUS INDONESIA	2014	1,000	
55	한인회 이사	노 예 범	PT. SAM PUTRA INTI	2014	1,000	
56	한인회 이사	박 성 대	PT. HANJIN INDONESIA	2014	1,000	
57	한인회 이사	배 정 옥	PT. AGRI TRADING INVESTMENT	2014	1,000	
58	한인회 이사	서 영 룰	PT. PRATAMA ABADI	2014	1,000	
59	한인회 이사	송 판 원	PT. KORYE POLIMER	2014	1,000	
60	한인회 이사	신 규 태	PT. INDO SUNGIL JAYA	2014	1,000	
61	한인회 이사	신 만 기	PT. PARKLAND WORLD	2013	1,000	
62	한인회 이사	안 상 영	PT. DAEHWA LEATHER LESTARI	2014	1,000	
63	한인회 이사	안 선 근	U.I.N UNIVERSITY	2014	1,000	
64	한인회 이사	안 흥 제	PT. KOLON INA	2014	1,000	
65	한인회 이사	양 시 완	PT. KISWIRE BALARAJA	2014	1,000	
66	한인회 이사	양 태 화	PT. BOSUNG INDONESIA	2014	1,000	
67	한인회 이사	오 세 명	PT. SUNG LIM CHEMICAL	2014	1,000	
68	한인회 이사	유 주 완	PT. FEEL BUY	2014	1,000	
69	한인회 이사	윤 석 환	PT. SUNG SHIN INDONESIA	2014	1,000	
70	한인회 이사	이 상 일	PT. U I B	2014	1,000	
71	한인회 이사	이 소 왕	L S W	2013	1,000	
72	한인회 이사	이 옥 찬	PT. KORINA SEMARANG	2014	1,000	
73	한인회 이사	이 지 완	PT. JIN YOUNG	2014	1,000	
74	한인회 이사	이 창 훈	PT. KIDECO JAYA AGUNG	2014	1,000	
75	한인회 이사	이 철 훈	PT. INDO BOX UTAMA JAYA	2014	1,000	
76	한인회 이사	임 성 용	PT. MIRINA NUSANTARA	2014	1,000	
77	한인회 이사	정 철 주	PT. DONG IL	2014	1,000	
78	한인회 이사	조 호 신	PT. SONERGY	2014	1,000	
79	한인회 이사	차 상 만	PT. HANKOOK CERAMIC	2014	1,000	
80	한인회 이사	홍 기 호	PT. AURORA WORLD	2014	1,000	
81	한인회 이사	황 윤 흥	자카르타경제일보사	2014		11675000
총 금액					\$192,000	Rp23,675,000

## 2014년 한인회 개인회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명단 (접수순)

번호	성명	납입연도	금 액	
			IDR	USD
1	신 기 업	2014	10,000,000	
2	이 지 현	2014	6,000,000	
3	김 주 철	2014	3,000,000	
4	이 종 후	2014	1,000,000	
5	백 승 래	2014		200
6	손 용	2014	300,000	
7	임 성 용	2014	300,000	
8	이 승 민	2014	300,000	
9	김 재 민	2014	300,000	
10	신 기 업	2014	300,000	
11	강 희 중	2014	300,000	
12	강 덕 재	2014	3,300,000	
13	김 원 모	2014	300,000	
14	권 영 동	2014	300,000	
15	김 일 태	2014	300,000	
16	이 소 왕	2014	300,000	
17	이 완 주	2014	300,000	
18	이 효 욱	2014	300,000	
19	정 재 호	2014	300,000	
20	최 건 호	2014	300,000	
21	최 문 중	2014	300,000	
22	홍 석 진	2014	300,000	
23	홍 훈 섭	2014	300,000	
24	김 섭	2014	300,000	
25	김 종 주	2014	300,000	
26	오 세 윤	2014	300,000	
27	김 현 동	2014	300,000	
28	백 승 명	2014	300,000	
29	윤 석 환	2014	300,000	
30	이 기 열	2014	300,000	
31	이 정 호	2014	300,000	
32	최 호 영	2014	300,000	
33	황 재 규	2014	300,000	
34	한 기 환	2014	300,000	
35	배 희 윤	2014	300,000	
36	이 봉 규	2014	300,000	
37	이 원 만	2014	300,000	
38	박 정 호	2014	300,000	
39	양 영 연	2014	300,000	
40	배 영 태	2014	300,000	
41	최 철 우	2014	300,000	
42	김 영 수	2014	300,000	

번호	성명	납입연도	금액	
			IDR	USD
43	이 일 하	2014	300,000	
44	이 수 진	2014	300,000	
45	장 방 식	2014	300,000	
46	조 규 철	2014	300,000	
47	최 양 기	2014	300,000	
48	엄 종 한	2014	300,000	
49	no name	2014	300,000	
50	오 세 명	2014	300,000	
51	김 세 형	2014	300,000	
52	서울메디칼	2014	300,000	
53	김 도 상	2014	300,000	
5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1,500,000	
55	김 영 울	2014	300,000	
56	김 창 근	2014	300,000	
57	김 대 근	2014	300,000	
58	조 용 재	2014	300,000	
59	이 재 원	2014	300,000	
60	ROTC 김 수 용	2014	300,000	
61	ROTC 김 흥 규	2014	300,000	
62	ROTC 최 형 욱	2014	300,000	
63	ROTC 김 광 석	2014	300,000	
64	ROTC 김 기 주	2014	300,000	
65	ROTC 목 의 수	2014	300,000	
66	ROTC 김 성 주	2014	300,000	
67	ROTC 이 시 현	2014	300,000	
68	최 우 범	2014~2018	1,500,000	
69	신 규 태	2014~2015	600,000	
70	김 영 필	2014	300,000	
71	김 종 헌	2014	300,000	
72	임 성 필	2014	300,000	
73	이 지 완	2014	300,000	
74	강 영 균	2014	300,000	
75	이 현 식	2014	300,000	
76	서 준 형	2014	300,000	
77	김 경 국	2014	300,000	
78	김 우 재	2014	300,000	
79	강 희 중	2014	300,000	
80	박 현 식	2014	300,000	
81	현 상 범	2014	300,000	
82	장 인 욱	2014	300,000	
83	조 호 신	2014	300,000	
84	이 순 형	2014	300,000	
85	한국음악협회	2014	5,000,000	
총 금액			Rp54,400,000	\$200



#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 ■전화번호 안내

시내.....	108
Directory Service(City)	
시 외.....	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	001,008

##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타공항안내.....	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	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	801
Toll Road	
교통사고.....	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열차시간안내.....	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	021)692 8515

##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021)2967 2555
영사과.....	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021)521 2515

##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	021)521 2180
(공항).....	021)550 2389
가루다(Call Center).....	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 항공(시내).....	021)5721 381~3
(공항).....	021)5591 3229
싱가폴항공.....	021)570 4411

##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	021)384 4188
-----------------	--------------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	123
전화고장 문의.....	147
수도고장 문의.....	021)57986555



Creative Director  
President Director  
Tae-Joong. Rhee

**PT. INNOMATE** Think the Unthinkable!

**A** 14F, SME-Tower, JL. Jend. Gatot Subroto Kav 94, South Jakarta, 12780

**T** +62. 21. 7919. 2006(Rep.) **F** 070. 4644. 2280(Dir.) **F** +62. 21. 7919. 2062

**M** 0812. 1011. 1000 / 0822. 2110. 2922 **E** jasoncpu@gmail.com

**Design Division** **A** 4F Dongsung Bldg, 7-27, Chungdam-dong, Gangnam-gu, Seoul, 135-949, Korea

# THE PROFESSIONAL INTERIOR COMPANY

인테리어 전문회사 이노메이트

All the designs are completed by specialists!

이노메이트는 최고의 전문성으로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고객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Office Design / Hospitality Design / Retail Space Design  
Residential Design / Cultural Space & Exhibition Design  
Transportation Space / Medical Space  
Educational training facility / Overseas Projects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한인회	5532 5555
반동한인회	022 2021566
발리한인회	0361 723 070
동부자바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한인회	0266 736 441
중부자바한인회	0298 522 587
메단한인회	0811 608 724
족자한인회	0274 376 741
바탐한인회	0778 392 01
보고르한인회	0251 7782 2959
찌까랑한인회	8990 9917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국악사랑단체	0811 90 2003
즈빠라한인회	0291 598593
(총무 조영성)	0813 90323355)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0815 1071 0023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골라빠가당)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HIS)	0812971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EMBASSYSCHOOL	390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	780 7313

### ●유치원

bambino (위자야)	720 3356
(빠뜨라 꾸닝안)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골라빠가당)	471 8047
(땅그랑)	558 7227

###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	---------------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가나** **한식당**  
**KANA 가나 RESTOLOUNGE**


**EVENT 대환영**

- 돌잔치, 회식, 신년회, 송년회
- 도시락 쿵서비스, 캐터링

**토요일/일요일 20%특별할인**

Landmark Bld. Ground Floor  
 Jl. Jend. Sudirman Kav. 1 Jakarta  
 Phone : 2520077, 5710909  
 HP : 0811 918 132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佳肴** 최상의 재료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그 이름에 남아 모시겠습니다

**佳肴 Gahyo**

(021)9127-2262  
 SCBD Jl. Jend. Sudirman Kav. 52-53 Lot. 6 Jkt  
 (021)4587-6626  
 Sport Mall Kelapa Gading Blok A 26-27 Jkt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	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	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	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	372 030
LIDO	0251	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	827 2111
RANCAMAYA	0251	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	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노태진)	0816	835 185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상고(정천수)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5	1906 0877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신균)	0811	157 450
서울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중고(김정욱)	08151932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웅)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최무중)	0811 8532 0354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취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인기상)	739 7625
경북대(김규식)	0816 182 3748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백성영)	871 2371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사관후보생(김기정)	08179187100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윤)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근)	0811 850 212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김인환)	0813 1572 188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송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4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승)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손동근)	0811 844 247



"아침을 깨우는 신문"

자카르타경제신문

아침 PAGI .co.id

자카르타경제신문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세요.  
자카르타경제신문의 온라인 신문이 드디어 여러분을 찾아가합니다.  
이제 지면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더 빠르고 생생한 인도네시아 소식과 한인동포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총남대(노제익)	452 6968
총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신성철)	0818 936 943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515 1919
하나은행	522 0222~3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20 0240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뵈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sup>th</sup>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807  
www.doowang.net | E-mail: doowang@cbn.net.id



Tel: (021) 4587 8833 Fax: (021) 293 64168  
HP: 0812 967 8131

E: rodemtours@naver.com  
rodem\_tours@cbn.net.id

Korean Traditional Grill

# 고주몽



## 7279-6709

Jl. Panglima Polim IX No.7-9 Jakarta Selatan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췁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롬황성주생식 5296 1522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설비 전기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탁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퀵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부산횃집(골라빠가딩)	4585 1156	장터(골라빠가딩)	4585 4302
K-마트	725 2122	산들(땅그랑)	5579 5821	종가집	8990 6956
위자야마트	726 9049	산타코리아	722 9921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b>•식당</b>		싼티카 클래식(버까시)	8459 9282	카사블랑카	8241 4949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상록수	8983 6047	코레아나	390 4568
가야성	725 7373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코리안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가효(Sudirman)	9127 2262	서라벌	572 3475	코리안하우스(반동) (022)	203 1626
가효(Kelapa Gading)	4587 6626	서울가든	(0361)768 323	코리안우스(횃집)	844 5877
강강수월래	380 5217	서울일식(땅그랑)	546 0845	타임(까라와찌)	5577 6324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서울팔레스	(024) 447 414	태극관	822 7011
강촌(땅그랑)	5579 3681	소양(찌까랑)	897 2231	토담	521 0230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송가네 삼계탕(골라빠가딩)	4585 4422	토박	725 1135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팔레스	5296 2001
고목(찌까랑)	897 3463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고인돌	452 5597	수라청(골라빠가딩)	4585 1115	청기와	726 1924
고주몽	7279 6709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청마루(골라빠가딩)	452 5597
국일관	822 8974	시티서울	5289 7506	청해수산	739 7032
권명희복집	720 7464	신도시	897 3615	초가(가라와찌)	552 6043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아랑 22	5140 1245	춘하추동	5940 2846
기소야	574 7581	아랑갈비	8983 6047	팡팡치킨	720 7275
뉴코리아타워	3193 0311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다리아분식	722 0276	아리아분식	722 0276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3334
대감집	726 435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김삿갓	722 2230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하림각	551 8511
동해복집	720 7464	압구정	2905 2925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마포	7279 2479	이스타나코리아	314 4501	한국관	720 7322
만나	821 5279	어울림	551 4853	한민족	725 2688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아마(땅그랑)	547 2722	한성관(골라빠가딩)	453 3033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어울(땅그랑)	551 4853	한솔	5290 3417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분가	739 6229	한양가든	521 2522
물레방아	8990 6956	우리들(땅그랑)	552 4047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목우촌	450 4155	울엄마	920 7244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미르(맨하튼호텔)	5296 1201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할매손칼국수(골라빠가딩)	4585 3398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함지박	739 6958
버까시서울(버까시)	8895 7604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향수	645 2378
		장수대	726 4570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BBQ(골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일보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하나족자트라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라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3192 4449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INNOMATE	7919 2006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랜스	520 4181
트랜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증권/보험

삼성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KDB 대우증권	515 1140
LIG 손해보험	391 3101

●건설팅

글로벌건설팅	7280 0524
누비라건설팅(리쁘찌까랑)	8990 0088
두왕건설팅	520 7153
새천년건설팅	5290 0040
우리건설팅	7918 4239
건설팅 21	799 6182
퓨릭건설팅	5596 3213
한생건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하숙

경북공하숙(리쁘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간다리아게스트하우스	085814422900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1341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15149978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동지 하숙	3608 9316
리쁘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모이하숙	0878 8515 1653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명 하숙	0852 1757 55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소망 하숙	0813 1724 9911
쉼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1780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인다 게스트하우스	082260748228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엘림 게스트하우스	0815 181 3122
위자야게스트하우스	081510248888
자카르타 게스트하우스	0817 127 887
폴하우스	0818 901 609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한마음 게스트하우스	0813 8822 7783
BSD등불 하숙	0852 1985 1523
힐링 게스트하우스	0821 1427 5415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	-----------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논술	4586 7844
뿐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아트스쿨(리본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케이에듀인 한국어/유학원	2942 7062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3582 0077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한인예총

(회장 김문환)	0811 901983
미술협회(이은수)	0821 1414 2244
음악협회(김순재)	0856 1376 677
어린이합창단(안영수)	0811 900 5639
라뮤즈합창단(유지영)	0813 9868 9802
서예협회(제종경)	0811 8304 77
월화차문화원(이선주)	0821 11794242
색소폰동우회(배종문)	0816 881423
문인협회(사공경)	0816 1909976
한바패(박형동)	0811 149 586
루시플라워(최정순)	0811 834 026
사진협회(민영기)	0811 177503
국악사랑(장방식)	0811 902003
헤리티지(이수진)	0816 1300 210
색동회(강희중)	0816 798221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얏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창립 20주년 행사

고객님의 사랑과 성원으로

창립 20주년 감사 특별할인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매각 가능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세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 점(수출/무역)

HP. 0816-873-176  
HP. 0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dailyindonesia.co.kr**

데일리 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수출 수입 대행 전문회사**  
**PT. SJ GLOBAL INDONESIA**

- 수출대행 : 모든 품목  
(단 수출 금지품목 제외)
- 수입대행 : API-U 가 없거나, 있더라도 품목허가가 없는 경우  
(공산품 대부분의 수입허가 보유)

전화 : 021)290 99 865  
HP)081 389 333 739  
E-Mail : charles@sj-global.co.kr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	3793 9452
--------	------	-----------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	-----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	-----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	-----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둥 (지역번호 02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안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퓨터	0821-2222-6000	

# KORINDO Plants the Green



인류의 지속가능성, 녹색경영에서 해법을 찾다!

코린도의 주력사업인 천연림경영, 조림, 팜오일, 목가공사업 등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가능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 Green Tomorrow

파푸아 오일팜 농장  
Asiki, Papua Indonesia



**KMK GROUP**

성공하는 기업보다  
함께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KMK GROUP 의 희망입니다.



**K1**



**K2**



**RCI**



**HTM (K5)**



Haesley Nine Bridge

# THE PROFESSIONAL INTERIOR COMPANY

인테리어 전문회사 이노메이트

**“Think the Unthinkable!”**

다른 생각 ; 다른 행동 ; 다른 결과 ; 앞서서 남다름!!

TtU는 마인드 행동양식, 표현방식 등 기존의 모든 것을 개혁하려는 이노메이트의 핵심입니다.!



The reception area:the sailing-boat-like reception desk visualises the value-thinking IBM lives by.



KBS Media Center

## All the designs are completed by specialists!

이노메이트는 최고의 전문성으로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고객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Office Design / Hospitality Design / Retail Space Design  
Residential Design / Cultural Space & Exhibition Design  
Transportation Space / Medical Space  
Educational training facility / Overseas Projects

Creative human space design **INNOMATE**

14F, SME-Tower, Jl. Jend. Gatot Subroto Kav 94, South Jakarta, 12780 / Rep. 021. 7919. 2006 / IP. 070. 4644. 2280 / M 0812. 1011. 1000

이노메이트의 수익금의 일부는 JKS(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하여 고객의 명의로 장학금으로 기부 예정입니다.



# 30년의 선물

## 이 검은 돌이 주는 놀라운 혜택을 아십니까

수 천 만년 땅 속에 묻혀있던 이 검은 암석들이  
**KIDECO**의 기술로 이 땅으로 나오면  
비로소 그때, 우리가 사는 도시 구석구석으로  
따스한 빛과 열기가 되어 다닙니다.

참으로 긴 세월, 지난 30년-  
자원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누빈 사람들, **KIDECO**  
우리의 열정과 땀이 당신의 삶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The Most Reliable Coal Supplier**  
**PT. KIDECO JAYA AGUNG**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삶 속에  
KIDECO가 함께합니다.

**KIDECO는,**

동부 갈리만탄 Paser에서 생산량규모 세계 5위권의  
유연탄광 파시르 광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우량 글로벌 자원개발 전문기업  **PT. KIDECO JAYA AGUNG**

